



서울대 同窓會 報

동창회 지표 •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金在淳
편집인 鄭宗澤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04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5 • FAX: 703-0755
인쇄처 한길기획

은행지로번호 7500875
http://www.suna.or.kr

제 259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9년 10월 15일

[1]



새 천년을 빛낼 관악의 요람, 웅장하다!

주요목차

지부순례	3면
캐나다 밴쿠버 지부	
건강을 지킵시다	3면
南喆鉉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장	
추억의 창	3면
金鎮福 대한암협회 회장	
모임탐방	4면
상대 바둑 동호회	
동문을 찾아서	10면
李相周 2001년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장	
화제의 동문	14면
金大起 SK케미칼 생명과학연구실장	
기업탐방	14면
(주)동일기술공사	

관악춘추

지난 9월 18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대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 실험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박사과정 2명과 석사과정 1명 등 모두 세 명의 서울대인이 끝내 세상을 떠났다.

관악캠퍼스에서 뜻밖에 발생한 이번 悲報를 접하면서 서울대학교와 서울대 동문은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도 여느 다른 사건, 사고 때보다 더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왜냐하면 이번 서울대 실험실 폭발사고가 단순히 人命을 앗아간 사고에 그치지 않고 몇 가지 점에서 世人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청명한 가을 그 것도 토요일 대낮에 젊은 학도들이 실험실에서 연구에 몰두했다는 점이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말이면 교외로 나가 젊음을 만끽하는 것이 보편화된 世態 속에서 이들은 젊음의 열기를 연구실에서 불사르고 있었다는 報道는 주위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애타게 했다.

『이들의 사망소식에 마음 아프기 그지없지만 제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이런 젊은 학도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든든하다』는 한 市民의 고백이 기성세대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듯이 들린다.

둘째로 비록 유명은 달리 했지만 이들 세 명의 서울大學徒가 가꾸어온 학문의 꿈이다. 아직도 국내에서 미래적 분야가 많은 「未來의 에너지」를 개발해 보겠

다며 원자핵공학 연구실에서 宿食을 해결할 정도로 연구에 매달린 이들의 向學熱에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럴수록 정부의 「BK21」 즉 21세기 한국두뇌 육성정책이 보다 더 일찌감치 적극적으로 추진됐다면 서울大의 각종 연구시설의 현대화로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끝으로 이번 사고로 희생된 故 金玪永(93년 工大卒·박사과정)동문의 아버지가 밝힌 「눈물의 장학금」이 장안의 화제가 되어 여운을 남기고 있다. 故人의 아버지 金大天(63년 文理大卒)동문이 이번 사고로 숨진 아들의 보상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자신도 서울대 화학과 59학번인 金동문은 『玪永이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어 인류의 미래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는 아들의 생전의 뜻을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 유족들이 대부분 비통함 속에서 채 헤어내기 힘든 사고발생 이틀만에 희생자의 아버지가 눈물을 적시며 밝힌 이 말 한마디는 온갖 사건, 사고로 점철된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또 한번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다.

자신이 못다 한 공부를 代를 이은 아들이 이어 받고, 이번에는 아들의 못다 핀 꿈을 후배들이 대신 이뤄 주기를 바란다는 金동문의 마음이야말로 「서울大의 영원한 학문」정신이 아닐까 싶다.

이런 정신이 곳곳에 깃들어 있기에 10월 15일로 개교 53주년을 맞는 서울대학교의 앞날은 희망이 가득하게 느껴진다. (圭)

서울大人的 영원한 학문

10월 17日

서울대가족 친목 등산대회



드리나무광장

시사주간지의 제작책임 맡고 있던 90년대 초의 어느 날, 커버스토리로 서울 압구정동의 젊은이 풍속도를 채택한 후 표지 사진감을 고르면서 새로운 풍속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

한낮에 신세대 남녀 한 쌍이 한 망토(소매없는 외투)속에 허리를 끼고 압구정동 거리를 활보하는 뒷모습은 새로운 감각적 세대가 벌써 출현해 있음을 알려주는 장면이었다. 그때 기사를 작성한 문화부 기자(시인이었다)가 표제로 붙인 것이 「욕망의 해방구 압구정동」이었다. 문화현상 분석가들은 욕망의 해방구는 보수 안정으로 회귀하던 당시 한국의 사회분위기 및 자본주의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문화현상의 현장이라고 보았다.

그 자리는 그보다 10년 앞선 80년대 초반에는 기성세대의 소비와 욕망을 상징한 압구정 문화의 거리였다. 새 아파트군과 신중산층을 겨냥한 의상실과 백화점, 주점과 식당 등이 일대에 들어서 기성소비문화의 메트로폴리스로 자리잡는 듯 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기성문화는 가라앉아 버리고 신중산층 2세로 구성된 압구정족의 해방구가 되어 세대가 바뀐 것이다.

경직된 기성세대의 윤리적 시각으로는 압구정 문화가 소비와 향락을 분출하는 신세대 풍속에



경원대 安炳燦교수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욕망의 해방구와 동시에 90년대 대중문화의 판도를 바꾼 댄스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댄스그룹으로 대표되는 신세대문화는 일거에 주류 대중문화를 접수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그들은 속도와 동작과 이미지로 단숨에 정상에 올랐다가 금방 사라지는 특징을 보였다. 신세대 스타들은 육감적이었지만 빠르게 명멸했다.

스타의 명멸속에 분출한 것이 「오빠부대」이다. 오빠부대는 10대의 욕망과 절규를 밖으로 뽐내며 절절한 마음을 표실했다. 이 젊은 10대 대중의 몰입과 분출이 무엇을 뜻하는 지는 자명했다.

질식할 것 같은 기성세대의 훈계와 속박에 언더리를 내는 10대의 반항이 오빠부대를 편성한 셈이다. 강렬하고 농밀한 환호와 절규를 담은 10대의 소리를 「빛나간 H.O.T사랑」이니 「무분별한 집단 실신」이니 하고 야단만 쳐야 소용없다. 그들의 몰입을 이해하고 10대 문화를 수용하는 기성세대의 가슴이 필요하다.

〈본보 논설위원〉

10대의 문명

농생대 관악이전 장애요인 많아 동문들의 관심과 협조 절실하다

동문칼럼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27일 모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제16대 학장으로 취임한 李敦求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면으로 동문 여러분을 찾아 뵙게 된 것은 다름아니라, 우리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오랜 숙원사업인 캠퍼스 이전이 역대 총장님을 비롯하여 학장님, 교수님 그리고 학생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제 그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 때문에 지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동문 여러분께 알려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 수원캠퍼스는 지난 90여년간 우리나라의 녹색혁명과 치산녹화의 주역으로서 한국 농·임·축산학의 산실이였으며, 최근에는 첨단 생명공학 그리고 환경관련 학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원캠퍼스는 인근 비행장에서 나오는 전투기의 굉음과 낙후된 건물, 그리고 도서관 및 전산시설 등 열악한 연구시설로 인하여 과연 이곳이 한국의 농업생명과학을 책임지는 서울대학교 시설인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타 대학의 관련 교과목과 교양과목을 수강하기 위하여 관악과 수원을 오가는 등 시간적 피해와 정신적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관련 학문간의 교류는 아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농업생명과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관련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모교가 세계 일류대학으로 나아가는데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교는 농업생명과학대학을 한국 농업생명과학의 발전과 다가오는 21세기의 생명·환경관련 첨단학문 요람으로 발전시키고자 오래전에 수원캠퍼스를 관악캠퍼스로 이전키로 했습니다. 96년 이 계획은 수도권 정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새로운 캠퍼스 설계가 이미 완료됐습니다. 올해에는 건물시공을 위해 정부로부터 70억의 예산까지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이전 부지로 결정된 곳은 관악캠퍼스 후문쪽 야산지대입니다. 이곳은 인공조림 지역으로서 임상이 양호하지는 않으나 지목상 산림지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관할하는 관악구청과 협의하

도록 되어 있으며, 이 협의가 끝나면 새로운 캠퍼스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신축되는 캠퍼스는 산림, 환경 및 경관 분석 전문가인 산림자원학과, 조경학과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변 경관과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깊게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정리되는 일부 수목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의 정성과 기술을 다해 보다 우수한 수종으로 그 이상의 숲을 조성하기로 관악구민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관악구청장은 표면상으로는 관악지역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와 몇몇 정·관계 인사의 반대를 이유로 협의를 하지 않고 있으나 유사한 여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산림지역이라도 협의를 하는 행정의 편파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수십년간 교수님과 동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농업생명과학의 학문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임 학장을 비롯하여 교수님들과 총장께서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신임 학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동문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전의 절박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는 여러분의 일치된 이해와 지원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전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여론화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부디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새시대의 주역으로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李敦求

(69년 農大卒)

모교 농생대 학장

동창회보는 동문 여러분의 것입니다

동문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요.

편집부 전화 : 702-2233·FAX : 703-0755

E-Mail : SNUA@netsgo.com



캐나다 밴쿠버지부

태평양 연안 오레곤, 캘리포니아주의 나무들은 심한 바닷바람으로 한결같이 내륙 쪽으로 휘어져있다. 샌프란시스코를 출항한 한국 해군사관학교 훈련생들이 여름인데도 겨울 복장으로 밴쿠버에 도착한 적이 있다. 그들은 만주의 하얼빈보다 높은 위도에 있는 이곳 날씨가 추울 것으로 예상, 겨울옷으로 바껴 입었다고 한다.

태평양 바다에 연결된 항구도시 밴쿠버에는 전라남도 해남 남단에서 강원도 해금강까지의 거리인 장장 약 500km거리의 큰 섬이 있어, 태평양 바다의 모진 풍파를 막아 줌으로써 밴쿠버의 도시는 평온하고 쪽쪽 뻗은 키가 큰 사철나무로 단장된 산수가 아주 아름다운 곳이다. 천당에서 1당이 모자라 999당이라는 세계 4대 미항중의 하나이다.

동문들이 가족을 동반하고 이곳에 처음으로 이주한 때가 67년도 초반이었고, 비율로 볼 때 당시 이곳 밴쿠버에 이주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 동문들의 수가 제일 많았다고 생각된다. 이후 70년대 중반부터 가족 초청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자연히 교회도 종파별로 모이기 시작했고 연말 연초에 동문들간의 모임도

91년 창립, 회원 1백30여명의 대가족

장학사업·「관악상」시상 등 다채로운 행사 돋보여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후 가끔 동문 송년회를 개최해오다 지난 91년 가을 趙完圭(52년 文理大卒) 박사의 밴쿠버 방문을 계기로, 이곳에 가장 오래 거주한 張範植(54년 文理大卒) 동문을 중심으로 동창회 창립 총회를 열고 韓圭晉(60년 農大卒) 동문을 초대 회장에 선출했다. 당시 韓회장과 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총동창회로부터 「밴쿠버지부」로 승인을 받았으며, 지부 동창회기 수령, 모교 과학진흥기금 출연 등 총동창회 및 모교와 긴밀한 유대를 강화해 지부로서의 기틀을 서서히 잡아 나갔다.

초대 사업으로 1백32명의 회원에 대한 명부를 발행했으며, 소식지 발간, 동창회보 배포, 내방인사 환영, 회원 경조인사, 연말 총회 및 송년회 개최 등을 주 업무로 하였다. 점차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져 95년에는 전문분야에 몸담고 있는 동문들의 강연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으며, 97년에는 동문 및 비동문 자녀에게 장학금을 출연하는 등 장학사업도 시작했다. 특히 올해에는 한인회 산하 사업으로 장학금 모금운동을 펼치기도 했으며, 또한 지역 사회 발전에 공

글 : 崔伸根(65년 藥大卒)총무

로가 있는 동문이나 비동문에게 감사패를 드리는 「관악상」 수여도 97년부터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다.

또한 캐나다 범교민적으로 「북한기근 돕기 자선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캐나다 선명회 한국지부에 1천5백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본회는 범교민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부로 성장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추석을 맞아 본 지부는 한국 전통음악인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며, 李正愛(87년 音

大卒)·洪昌男(88년 音大卒)동문 등이 주축이 되어 다년간 공연해 온 「서북미 국악원 정기공연」을 후원하게 됐다. 이를 토대로 올해 연말 정기총회 및 송년회에는 2부 여흥순서에 국악 특별순서와 노래자랑을 준비중이다.

한편 지난 8월 7일 가졌던 동문야유회에는 많은 동문이 가족동반으로 참석했으며, 본 지부를 방문중인 동문과 교환교수로 재직 중인 동문 등이 자리를 함께 하며 흥겨운 축제의 한마당을 펼치기도 했다.

진리에 의한 참여, 협력으로 모든 영광이 사회에 환원되기를 바라면서 본 지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역대 지부회장 및 총동창회장의 발자취를 따라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며, 태평양 이편에서 태평양 저편에 안부를 전한다.



99년 8월 7일 열린 동문야유회

건강을 지킵시다

건강은 손씻기부터

南喆鉉(64년 保大院卒·경산대 교수)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장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고 풍요롭게 오래 오래 잘살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98년 현재 남자 69.6세, 여자 77.4세로 평균 73.5세이며 일본은 남자 76.4세, 여자 82.6세로 평균 79.5세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일본국민이 우리나라 국민보다 6년 더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10년전에는 9년 차이였는데 많이 따라잡은 셈이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같은 동양인이고 식생활도 비슷하며 비행기로 1~2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데 왜 평균수명의 차이가 이렇게 클까 하는 의문을 갖는 사람은 드물다.

일본국민이 우리나라 국민보다 6년이 나 오래 산다는 것은 맵고 짜게 먹지 않고 소식하며 청결하고 목욕을 자주한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의 보건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화장실을 다녀온 후, 손을 반드시 씻는 사람이 몇 %나 될 것인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장소인 기차나 버스역, 공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위치한 공중변소에서 대소변을 본 후, 손을 씻지 않고 그냥 화장실을 나서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손을 씻지 않으면 人畜의 대장균만 있는 즉 대변에만 존재하는 대장균이 손에 묻어날 수 있으나 일반 대장균은 병원성 균(0-157은 제외)은 아니므로 설사성 대장균에 의한 설사 이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대장균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변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연결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과 음식물 감염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문제가 크므로 대장균을 오염의 지표로 정하고 음료수나 식품 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서는 안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귀찮은 일이지만 건강한 생활을 한다는 기본 행위이기 때문에 손을 씻는 사람은 모든 그의 생활에서 건강한 행동을 귀찮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근래 사망원인 질병 순위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생활양식의 변화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각자의 건강증진 행위는 대단히 중요하며 손씻기는 그 시발점이다.

뉴욕시와 동경시의 보건국장도 손을 씻으면 질병의 90%는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국민건강생활지침에서도 「손을 씻자」가 첫 순위에 있다. 우리 모두 식사 전에, 화장실 다녀온 후에, 업무를 마친 후에, 그리고 외출하고 돌아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추억의窓

포르말린 냄새에 눈물 쏟기 일쑤
옛 함춘원 동산 산책로 그리워

金鎮福(58년 醫大卒)인제대 서울백중앙의료원장·대한암협회장

그리운 함춘원 언덕의 숲속, 그 숲속에서 점심시간에 도시락도 먹고, 하늘을 보며 명상에 잠기기도 했다.

2년간의 의예과 시절은 다른 인문·사회대학이나 자연계대학과 비슷하게 일반인이 생각하는 대학생활, 즉 비교적 시간적으로 여유있게 공부할 수 있었던 대학생활이었다. 그러나 의과대학 본과로 진학하고 나서는 다시 고교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일주일 내내 짙게 짜여진 강의와 실습시간표에 따라 한눈 팔 사이없이 열심히 공부에만 열중해야 했다. 당시 교과서는 영문교과서 뿐이었다. 가격도 비싸서 다 사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것도 겨우 차레가 올 판이었다. 따라서 교수님들의 강의를 잘 기록해야만 했다. 급한 일로 부득이 강의를 못 들었을 경우에는 남의 노트를 빌려 베껴 수밖에 없었으나 이 또한 매우 힘들었다. 그만큼 모든 학생들은 열심히 강의를 들었고 포르말린 냄새로 눈물이 쏟아지는 해부학 실습을 하고 나면 골치가 아팠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다행히도 의과대학의 연건캠퍼스는 유적으로 남아있는 함춘원을 중심으로 그 주위의 얕은 동산에 푸른 숲이 있어 봄이면 진달래와 개나리가 잔뜩 피어, 우리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명 휴식처로 매일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주어 오후 수업 실습도 거뜬히 견딜 수 있게 해주었다.

병원에서 의과대학 건물로 내려가는 길은 산책로로서도 훌륭했다.

그러나 그 뒤 신축병원 건설 때문에 함춘원 동산이 없어지고 이어서 소아병원과 검진센터의 건설로 내가 즐겨 오던 남쪽의 작은 동산의 숲도 없어졌으며, 그 후에는 주차장 건설로 인해 시계탑 뒤편과 서편의 녹지대가 또 없어져 이제는 주위환경이 삭막하기까지 하다.

병원의 신축 때문에 녹지대가 없어진 것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주차장 건설 당시 땅속으로 한층만 더 파고 지상에는 그대로 나무가 있는 녹지대를 조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회복기 환자들이 앉아서 햇빛도 쬌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며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야 하지 않았을까?

또한 깊은 생각없이 속성으로 경제제전을 위해 또는 수출증가를 위한 산업발달 등을 이유로 파괴된 자연환경을 복구하려면 그동안 수입의 몇 배나 더 소요된다는 것을 왜 모를까? 지부부터라도 모든 일은 진실한 득실을 따져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믿는다.



함춘원 동산위에서 (좌측 필자)

특별기고

① 하버드大 현황

동문의 힘이 대학 명성 뒷받침

鄭哲圭(52년工大卒)태성고무화학 대표

필자가 지난 6월 15일부터 2주 간에 걸쳐 본회 金在淳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함께 재미동창회 4개지부를 순방하면서 둘러본 하버드大 및 MIT大의 현황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하버드대학은 1636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을 주도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최고의 명문대학으로서 7천1백명의 대학생과 약 1만1천5백명의 대학원생을 교육하는 대학원 중심대학이다.

이 대학은 역사적으로 7명의 미국대통령과 많은 정치인을 비롯해 27명의 노벨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일류대학이라 할 수 있다.

교수가 대학의 주인으로서 권위를 인정받지만 규정된 연구실적과 저서발행실적을 내지 못하면 排出되어야 하고 학생도 32과목의 학점을 따기 위해 하루에 9시간 이상을 공부해야 한다는 학문지상주의 대학이기도 하다.

이 대학의 특징은 학생전원이 캠퍼스 내에 있는 기숙사생활을 해야하고 학년마다 일정한 기숙사육이 정해져 있으며, 남녀가 공동 입주하고 있다는 점인데 여성의

비율이 46%에 달한다.

하버드대학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크고 작은 약 1백개의 도서관인데 도서관의 총 보유부수는 약 1천3백62만부에 이른다. 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Widener Memorial Library인데 이 도서관은 Widener부인이 호화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참변으로 사망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출연한 기부금으로 건립되었으며 5백10만부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Yenching Library는 동양에 관한 87만부의 도서를 보유한 전문도서관으로서 한국관장인 尹忠男(64년文理大卒)동문의 안내를 받아 내부를 견학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고대서적과 북한에서 발간된 서적들도 보관되어 있었다.

하버드대학의 순자산 규모는 98년 현재 1백60억불이다. 이 대학이 그 교육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은 탁월한 교육효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동창회 및 유지들의 강력한 기부금의 힘에 의한 것이다. 기부금은 최근 수년간에 주식투자 등 수익성이 높은 효과적인 투자운용으로 매년 크게 증가되었으며 98년 현재 약 1백

33억불의 거액에 달하고 있다.

하버드大 설립자인 「John Harvard」 동상앞에서 (좌측 첫번째 필자)



모임 採訪

商大 바둑사랑방 「棋友會」

건전한 두뇌스포츠 즐기며 우의 다져

「神이人間에게 내려준 最上의 게임」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둑은 한마디로 두뇌 스포츠의 결정판이다. 그속에는 老·少가 따로 없으며, 기술과 지혜를 바탕으로한 승부의 세계가 있을 뿐이다. 침묵과 인내의 시간 속에서 최고의 기사가 탄생되며, 끝없는 정진으로 실력을 닦아야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선비들이 풍류로 바둑을 즐겼고, 바둑을 두며 세상 이치를 깨닫기도 했다.

1회부터 43회까지 약 2백여명의 대식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상대동문들의 바둑모임인 「棋友會」는 이러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 정서를 바탕으로 두고 시작됐다.

아마 5단의 바둑실력을 자랑하고 있는 裴柱元(59년卒·APL KOREA 회장)동문의 발의로 창립된 기우회는 지난 96년 9월 15일 서초동 일품기원에서 제1회 바둑대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동문들의 바둑에 대한 뜨거운 애정에 불을 지폈다.

『처음 바둑대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문을 각 기별로 내보내자마자 열화와 같은 호응을 받아 깜짝 놀랐습니다』

金基柱(57년卒·공인회계사)회장의 회고처럼 기우회 창설에서 1회 대회 개최까지 4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동문들 사이에서는 바둑 열풍이 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한다.

당시 아마 6단의 洪龍濤(72년卒·우성해운 사장)동문이 기우회 간사장겸 대회 진행위원장을 맡아 순조로운 대회 운영을 위해 동분서주했으며, 프로 8단의 姜哲民(57년入·안나화원 대표)동문이 심판위원장으로 위촉돼 엄정한 대회 심사를 맡았다.

또한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趙淳(49년卒·국회의원)동문을 명예회장으로, 아마 5단의 한국기원 俞忠植(61년卒·동아제약 대표)이사와 嚴永錫(58년卒·동아대 총장)동문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96년 열린 첫 대회에는 張禮準(49년卒)상대동창회장이 직접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기도 했으며, 바둑TV 특별취재단이 나와 대회소식을 중계해 서울상대 기우회의 발족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효과도 거두었다고 한다.

성황리에 1회 대회를 마친 기우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바둑대회를 개최키로하고 97년 10월 12일 제2회 동창회장배 바둑대회를 열었다. 1회 대회때 만큼이나 열띤 성원 속에 치러진 2회 대회를 통해 기우회는 동문들의 결속과 우의를 다시한번 뜨겁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그러나 IMF로 인한 경기불안 등의 이유로 98년 3회 대회는 아쉽게 열리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별 교류전은 꾸준히 열리고 있다고 한다.

더 많은 서울대인들이 함께 바둑을 즐겼으면 한다는 김회장은 『바둑이야말로 건전한 두뇌스포츠로서 국민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치매방지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바둑에찬론을 펼쳐 보였다. (美)



96년 열린 제1회 바둑대회

「동문교향악단」 연주 대성황, 감동의 박수

金在淳회장 “화합으로 천상의 음률 이루었다”



본회(회장 金在淳)는 지난 9월 19일 오후 3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동문과 가족 및 일반 관객 1천여명이 객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제5회 동문교향악단(SNU Phil)연주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고 지나온 20세기를 정리하는 뜻깊은 이번 연주회는 본회가 주최하고 음악대학동창회가 주관하여 명실상부한 서울대인의 화합의 한 마당으로 마련됐다.

이번 연주회에는 지휘에 한양대 음대 교수인 朴恩聖(69년 音大卒)동문, 악장에 모교 음대 학장인 金 旻(64년 音大卒)동문을 비롯 서울시향, 부천시향, KBS교향악단, 코리아심포니 등의 교향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 90여명이 대거 참여했다.

동문교향악단은 이날 공연에서 에네스코의 「루마니아 광시곡 제

1번 작품11」, 프랑크의 「교향곡 d단조」와 모교 음대 4학년 李宣始 양이 바이올린을 협연한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작품47」 등을 선보였으며, 마지막으로 모교 교가를 연주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연주회를 마친 후 본회 李世震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리셉션에서 본회 金在淳회장은 『혼탁한 현실에서 벗어나 잠시 천상의 음률을 듣게 되어 가슴이 벅차다』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 모교의 발전과 조국의 번영을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金회장은 연주를 위해 수고해준 음대 동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동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李南洙음대동창회장은 『회를 거듭할수록 음악적으로 무르익은

연주회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연주자들과 비가 오는 가운데 성황을 이뤄주신 동문 가족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와 리셉션에는 본회 崔主鎬명예회장, 鄭宗澤상임부회장, 李聖秀·李達雨·宋斗顯·張翼龍부회장, 본보 林炯斗·李東和·李炯均·朴聖姬논설위원, 李誠載안익태기념재단 이사장, 李道卿부평문화재단 이사장, 金閔鍾마성상사 대표(관무회 회장)와 모교 李基俊총장, 南相午발전기금 상임이사 등이 가족과 함께 참석했다.

본회 金在淳회장은 연주회를 총 감독한 金 旻악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李南洙음대동창회장은 이번 연주회의 총무를 맡아 수고한 睦完洙음대동창회 부회장과 朴恩聖지휘자에게 각각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했다. (美)

제2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공고

「새로운 천년의 희망, 바로 이 사람(단체)이다」라고 생각하는 동문은 주저 없이 동창회로 소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에 포상하는 제2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에 아래 요령에 따라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오니 동문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여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력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광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동창회 지표인 「참여」「협력」「영광」 부문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
2. 구비 서류: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1) 접수마감: 2000년 1월 31일
 - 2) 접 수 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702-2233·팩스: 703-0755)
4. 시상 시기: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정기총회(2000년 3월 17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金在淳



金在淳회장이 金 旻악장(左)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朴恩聖동문(左)



음대 睦完洙부회장(左)

10월의 햇살 아래로 동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대인의 단합과 친목의 등산대회가 오는 10월 17일 거행됩니다. 푸짐한 먹거리와 경품, 그리고 잊고 지내던 옛 동문들과 재회의 기쁨을 HOME COMING DAY에서 맘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등산대회에서는 참가하신 동문 모두에게 세계적인 성악가 曹秀美(81년 音大入)동문의 「Best Music Collection」 기념CD를 드릴 예정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또 하나의 만남과 추억을 가꾸시길 바랍니다.

— 안 내 —

- 일 시: 10월 17일(日) 오전 9시 출발
- 집합장소: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 참가대상: 동문 및 동문가족
- 참가비용: 없음
- 제공물품: 도시락, 식음료, 기념품 등
- 경 품: 다량의 선물 추첨
- 문의전화: (02)702-2233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金在淳

Meet 만나 보고 싶었습니다

오는 10월 15일 모교 제53주년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캠퍼스내 혹은 주변에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서울대인을 위해 봉사해온 분들을 만나 모교의 역사와 함께 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서울대인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건 천사들

관악캠퍼스 본부 위생원 韓元順씨

“방독면 쓰고 일했던 기억 생생”



『서울대에서 일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 같아 정말 행복합니다. 집도 마련하고, 4남매 공부시켜 시집·장가도 보내고...』

관악캠퍼스 본부건물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새벽부터 땀 흘리는 위생원 韓元順(57세)씨는 고된 일보다 더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었다며 오히려 서울대에서 일하게 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한다 말한다.

韓씨가 처음 서울대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75년으로 내년이면 정년을 맞게 된다. 지난 20여년을 한결같이 아침 7시에 출근해 하루종일 담당구역 및 건물 청소와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잠시

도 쉴 틈은 없었지만 학생들과 교직원 및 교수들의 친절한 인사에 힘든지 모른다고. 특히 연말이면 작은 내복 한 벌이라도 챙겨 주었던 李壽成(61년 法大卒·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전임 총장을 비롯한 역대 총장들과 교수들의 자상함에 언제나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자연과학대학 건물에서 일할 당시 부학장으로 계시던 河永七(58년 文理大卒)교수님께 한번은 어렵게 남편의 직장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학교 기숙사쪽에 작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했죠』

내년이면 학교를 떠나야 하는 韓씨는 그동안 고마웠던 서울대인과의 추억에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70,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극렬했던 당시 학교에 최루연기가 가실 날이 없어 눈물, 콧물 흘리며 방독면까지 착용하고 청소를 했다는 韓씨는 요즘 학생들은 물건을 잃어버리고도 잘 찾아가질 않아 조금 걱정스럽다고. 86년 우수공무원상을 받았던 일 등 韓씨에게 서울대에서의 생활은 인생 그 자체였으며, 아름다운 추억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美)

관악캠퍼스 후생관 문구점 李菊子씨

연습장보다 컴퓨터 용품 잘팔려



『연세대나 고려대보다 문구용품이 가장 많이 나가는 곳이 서울대입니다. 이는 다른 대학보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7년 서울대와 인연을 맺은 李菊子(55세)씨는 그동안 학생회관과 기숙사 및 연건캠퍼스 등에서 학생들을 위해 애써왔으며, 현재 후생관 문구점에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 가족이다.

기숙사에 근무할 당시 오전 7시 출근에 오후 11시 퇴근이라는 악조건(?)하에서도 李씨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과 교직원의 가족같은 분위기가 바로 힘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아직 미혼인 李씨는 『관악캠퍼스에

출근할 때마다 느끼지만 자연의 아름다움과 학생들의 생기발랄한 모습을 보면 나도 젊어지는 같다』고 말했다.

『예전에 학생들은 두꺼운 분량의 연습장 등을 주로 찾았으나 지금 학생들은 양보다는 디자인 등에 더욱 신경써 학용품 구입한다』며 예전과 크게 달라진 면을 묻자 『노트보다는 컴퓨터로 리포트를 작성하기 때문에 컴퓨터 용품이 다른 것에 비해 많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李씨는 『외부에서 생각하는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선입견, 즉 공부만하고 고지식하며 이기적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고 그동안 느낀 서울대 학생들의 모습을 피력했다.

이제는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르는 학생들을 볼 때면 어느새 모든 학생들이 자식처럼 느껴진다고.

남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기쁨을 주는 코미디언이 아직도 꿈이라고 다소 수줍은 듯 말하는 李씨는 서울대의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정년으로 퇴직한 후에도 학교를 다시 찾아 오고 싶다고. (信)

연건캠퍼스 청원경찰 趙成基씨

처음엔 한번 순찰에 4시간 걸려

서울대에서 23년간 근무해온 청원경찰 趙成基(56세)씨가 맡고 있는 일의 주업무는 교내 경찰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들을 중점적으로 순찰하면서 도난사고 예방, 불법주차 차량단속, 학생 신변보호 등이다.

76년 4월 서울대와 첫 손을 잡은 趙씨는 사회의 첫 직장인 바로 이 곳이기도 하다고.

『입사 초기의 관악캠퍼스는 공기도 맑고 건물보다는 녹지가 잘 되어 있었으나, 숲이 많이 우거진 관계로 업무상 애로점도 많았다』고 말하는 趙씨는 『지금은 오토바이를 이용, 순찰을 하고 있으나 예전엔 도보로 순찰, 학내를 한번 도는데 3~4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또한 趙씨는 『80년대 당시 서울대 총장실 난입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틀동안 趙完圭총장 주위에서 밤샘 근무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시의 괴로웠던 심정을 토로했다.

『서울대와 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곳에 입사후 결혼하여 귀여운 자식을 낳고 조그마한 아파트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에 몸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 역시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것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건캠퍼스 순찰을 혼자 담당하고 있는 趙씨는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열의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도 매우 강렬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너무 공부에만 열중하는 것같아 건강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대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키고 있는 趙씨는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언제까지라도 봉직하고 싶다』며 『지금의 일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처음 입사시 가졌던 마음가짐으로 현재도 근무를 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信)

부총장 차량 운전원 朴鍾洙씨

모신 분이 성공할 때 가장 뿌듯

『제가 人福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모신 분들 모두 훌륭한 분들로, 때론 아버지처럼 때론 어머니처럼 가족같이 대해 주어 이렇게 오랫동안 서울대에서 봉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7년간 서울대와 함께해 온 운전원 朴鍾洙(55세)씨가 기자에게 처음 건넨 말이다.

72년 3월 서울대 무역연구소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차씨는 그후 사회과학대학과 본부, 자연과학대학 등을 두루 거치며, 李憲宰(66년 法大卒·금융감독위원장)·趙淳(49년 商大卒·국회의원)등문 등 당시 교수들의 차량을 운행해왔다.

차씨는 그동안 함께 지내온 많은 교수들에 관해 『그분들과 함께 일했던 시간은 내 인생의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으며, 훌륭한 분들을 모실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매우 뿌듯하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차씨는 학생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80년대, 당시 데모로 인해 공부와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던 학생과 교수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그동안 근무하면서 훌륭한 교수진과



뛰어난 학생들이 배출되어 서울대의 명예를 드높일 때마다 자신 또한 서울대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흐뭇함을 느꼈다고 차씨는 말했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학교 물품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절약을 잘하지 않는 것을 볼 때면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고 한다.

작년 11월부터 宋丙洛부총장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차씨는 『일이 어렵고 쉬운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충실할 때 비로소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직업관을 피력하며 『앞으로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信)

관악캠퍼스 공대식당 鄭順錫조리실장

“먹다 남은 음식 점점 늘어나요”



『20년 전에는 백반이 3백50원, 라면이 25원, 계란을 넣은 특라면이 30원이었는데 이제는 백반이 1천1백원이니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음식의 종류도 많이 늘었구요』

지난 78년 예술관 식당인 제2식당의 조리사로 처음 근무를 시작해 제4식당과 학생회관(제1식당)을 거쳐 현재 공대 식당(제3식당)에서 서울대인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鄭順錫(48세)조리실장.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음식을 위생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새벽 6시부터 나와 식당 점점에 음식 재료 검수까지 마쳐야 하는 鄭조리실장의 아침은 그 누구보다 바쁘다. 오전 11시 학생식당과 11시30분 교직원 식당 개점을 시작으로 점심배식을 끝마치고 나면 다시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루어지는 저녁

배식 준비에 또 여념이 없다.

鄭실장이 조리사로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식중독이나 이질 같은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없었다는 점.

『사실 올해처럼 고온다습한 여름철 날씨가 길어질 때는 아무리 싱싱한 재료를 사용해도 금방 변질되는 음식들이 많은데 모든 식당 직원들이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라며 공을 돌린다.

지난해 IMF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 몇몇 학생들이 돈을 내지 않고 밥을 먹거나 배급표 하나로 몇끼를 해결하는 걸 보며 가슴이 아팠다는 鄭실장은 그런 학생들일수록 눈치보지않고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많이 잘 먹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지만 학생들에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자신이 먹을 만큼만 적당히 받아가거나 담아가면 좋는데 쑥스러워서 그런지 한 번에 너무 많이 가지고 가서 다 먹지도 못하고 잔반통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음식물도 절약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텐데...』 鄭실장은 자신의 작은 충고가 어려운 보릿고개를 모르고 자란 요즘 신세대 학생들의 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美)

관악캠퍼스 본부 朴麟圭수위장

학생시위 줄어 훨씬 편해졌어요



71년 관악캠퍼스 건립이 한창이었던 때 건설본부 직원으로 처음 관악산 자락에 발을 딛게 된 朴麟圭(54세)본부수위장.

『75년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단과대학들이 옮겨오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무척 감격스러웠습니다』

본부 수위로 18년간 일해온 朴수위장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라는 고된 일과에도 학교를 찾는 손님들에 대한 친절 한 안내와 사고 및 도난방지를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정문이나 후문 및 차량계에서 일하고 있는 방호원들이 방문객에게 행선지나 방문 목적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지당했다고 불쾌하게만 생각지 말고 학교내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조금만 참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朴수위장은 이러한 일로 간혹 말썽이 생길 때면 친절하게 안내하려는 자신들의 좋은 뜻이 왜곡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새벽 6시30분이면 출근해 업무 준비를 확인하고 학교 전체를 돌아보며, 서울대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점검한다는 朴수위장은 위생원 및 방호원들의 업무 관리를 비롯해 본부 주변의 행사 준비와 감독 등의 일로 몸이 열개라도 부족한 형편이라고 한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 데모가 많이 줄

어 강제 진압 등 학생들과 불편하게 부딪히는 일이 없어져 일하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말하는 朴수위장은 공무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01년 3월까지 국립대의 모든 위생원과 방호원을 용역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젊은 후배들이 당장 일할 곳이 없어질까 걱정이라고.

『높은 분들이 현명하게 결정하셨지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서울대도 이제 개교 53주년을 맞아 더욱 발전되어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합니다』

차남 朴鍾成군이 농생대 농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朴수위장은 이제 진정한 서울대 동문 가족으로서 더욱 학교를 사랑할 것이다. (美)

신림동 호프집 「캠브리지」 姜亨來사장

녹두거리서 번 돈 서울대에 투자



『캠브리지』는 손님의 90%이상이 서울대인으로 신림동 녹두거리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들르기 어려운 호프집이다. 하지만 서울대 학생에게는 일반인의 간섭이 덜해 오히려 편한 공간이 되고 있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주요 고객이기도 한 姜亨來(39세)사장은 방학기간이나 명절 때 수입의 큰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

원래 이곳은 「테라조」라는 커피숍이었다. IMF로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자 자연히 가게운영도 힘겨워졌다. 그래서 저가메뉴로 재무장, 98년 11월 호프집 「캠브리지」로 개업한 것이다.

姜사장이 맨처음 녹두거리에 들어온 것은 92년 노래방을 운영하면서였다. 이때부터 천창호(97년 工大卒)동문에게 2학기동안 장학금을 주었고 96년 이후 「테라조」시절에도 「밝은 싹」을 의미하는 昭筭산업(現 한국멘텔 전신)을 운영

하며 고향(전북 순창) 후배인 조형훈(98년 師大卒)동문에게 3학기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다. 단지 「학생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가 그 이유였다.

「한국멘텔」은 姜사장이 그동안 모은 재산을 투자해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4학년인 林熙賢군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게임방(러쉬)을 통한 인터넷 토폴마켓 개념을 도입, 온라인 티켓판매 등 다양한 전자상거래를 펼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姜사장은 10년 가까이 녹두거리에 있으면서 서울대인의 「음주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음을 느낀다. 예전과는 달리 철저하게 더치페이하고, 서로 경쟁의식을 느껴서인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인지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자유토론하는 광경을 보기 힘들어졌다고.

李晚熙(86년 美大卒)동문의 멋진 인테리어 솜씨 덕분에 캠브리지는 여느 호프집과는 달리 쾌적하고 여유있는 분위기로 이름났다. 또한 카운터를 비워도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가는 학생이 없을 만큼 이제는 서울대인의 진정한 「마당」으로 자리잡았다.

남학생으로 흔치않게 의류학과를 지원한 윤태호(93년 家政大卒)동문과 윤명호(94년 社會大卒)동문을 처남으로 둔 姜사장은 좀더 성공을 거둔 후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해 서울대와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한다. (캠브리지 연락처 : 889-3113) (變)

동승동 「학림」다방 李忠烈사장

“옛 것을 살려가는 슬기 아쉬워”



젊음을 발산하는 해방구, 「동승동」. 70년대까지만해도 이곳은 철학과 낭만 그리고 정의를 목숨처럼 사랑했던 또 다른 청춘들의 거리였다. 이제는 무엇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없는 이곳.

그러나 40여년을 거슬러 추억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學林」이다.

지난 56년에 문을 연 후, 네 명의 주인을 거쳐 현재 李忠烈(44세)사장이 13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다. 한잔의 커피와 베토벤, 맥주 맛도 그대로다. 학림은 강의실에서 얻을 수 없는 교수와 학생들의 「열린 진리탐색의 공간」으로 인정받아 당시에 「문리대 제25강의실」이라 불렸다.

李사장이 매년 1천만원이 넘는 적자 운영이지만 학림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李德姬(59년 法大卒), 金芝河(66년 文理大卒), 洪思德(68년 文理大卒)동문 등 가끔씩 찾아주는 유명인들과 종종 자녀의 손을 잡고 들려주는 서울대인을 만나는 보람 때문이다.

당시 학림과 쌍벽을 이루던 중국집 「진아춘」은 냉면집으로 바뀌었고 「대학」다방, 「낙산」다방, 「쌍과부집」, 「오감도」 등은 그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일본인들은 동승동 대학건물의 일부가 헐릴 때 그 벽돌을 동경으로 가져가 경성제대 기념관을 지었다고 한다. 「문화의 거리」라 불리는 동승동만큼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해야 하지만 옛 것은 거의 사라지고 그 역사와 추억마저 값싸게 평

개치는 세대가 李사장은 아쉽고 안타깝다. 그런 이유로 그동안 이곳을 찾은 이들이 남긴 삽화와 사인, 추억담이 담긴 「낙서집」을 정리해 책으로 펴내고 싶지만 경제사정으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李사장은 「가능하다면 서울대 총동창회에서 「낙서집」의 제작을 기획하여 학림의 변함없는 모습을 기대하는 서울대인에게 배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귀뜸하기도.

IMF로 인해 작년 7월에는 학림의 문을 닫을 생각까지 했다는 李사장의 힘겨워 하는 모습에서 「학림 살리기 운동」이라도 펼쳐주길 바라는 마음이 었 보였다.

10년이상 아마추어 사진작가 모임인 「포토아트포럼」회원인 李사장은 가끔 연극공연 장면을 찍어주기도 하는데 내년 6월쯤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학림 연락처 : 742-2877) (變)

동정

수상

▲李相洙(49년 文理大卒·KAI-ST교수)=최근 제13회 「仁村賞(학술부문)」수상자에 선정됨.

▲李晟遠(58년 工大卒·청소년 도서재단 이사장·冠岳會理事)=지난 9월 16일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

로 문화관광부 주관 제5회 「독서문화상(대통령 표창)」을 받음.

▲李元起(62년 醫大卒·단국대 교수)=최근 미국 인명사전 ABI가 주관하는 「MAN OF THE YEAR-1999」에 선정됨.

▲白禹鉉(71년 工大卒·LG전자 기술담당 부사장)=최근 디지털 방송 및 위성통신 분야 노벨상으로 불리는 「클라크상」을 받았다. 이 상은 미국 위성방송통신 협회(SBCA)가 제정, 디지털 TV 및 위성통신기술의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최고권위의 상으로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수상함.

▲孫東煥(80년 師大卒·원광대 교수)=지난 8월 31일 하얏트호텔에서 동성제약(회장 李善圭)이 주관하는 제2회 「李善圭 약학상(본상 부문)」을 받음.

▲趙惠媛(80년 齒大卒·원광대 교수)=지난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8차 세계치과 보철학회에서 「도재관과 도재 지대주를 이용한 임플란트

보철물의 파절강도 및 지지 조직의 스트레인에 관한 연구」로 「최우수 발표상(포스터 부문)」을 받음.

▲金琉璃(97년 音大卒)=최근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요하네스 브람스 협회 주최 제6회 요하네스 브람스 국제콩쿨에서 첼로부문 2위에 입상했으며, 청중이 수여하는 현악부문 1위에 입상함.

이동·선임

▲金昌悅(58년 法大卒·前한국방송위원회 위원장·本報論說委員)=지난 9월 15일 한국일보 상임고문에

선임됨.
▲金承國(60년 文理大卒·단국대 대학원장)=지난 9월 1일 단국대학교 총장에 취임함.

▲河旻喆(61년 法大卒·변호사)=지난 9월 2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선출됨.

▲崔鍾泳(62년 法大卒·前대법원 대법관)=지난 9월 20일 대법원장에 임명됨.

▲沈珖漢(62년 師大卒·서울시 동부교육청 교육장)=지난 9월 1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에 선임됨.

▲姜敏求(62년 行大院卒·유성개발 대표·本會副會長)=지난 9월 7일 극동방송 이사회에 취임함.

▲崔洙秉(63년 商大卒·한국전

국립경찰병원 수뇌부 차지

李權鉏·曹敏錄·徐東曄동문



李權鉏



曹敏錄



徐東曄

국립경찰병원을 이끌 새 사령부에 모교 의대 출신 동문 3명이 나란히 포진했다.

李權鉏·曹敏錄·徐東曄동문이 그 주인공으로 李權鉏(72년 醫大卒)동문은 99년 4월 경찰병원 신임 원장(당시 3급)에 선임됐으며, 지난 9월 1일부로 의무이사관(2급)으

로 승진했다.

또한 曹敏錄(72년 醫大卒)동문은 경찰병원 내과과장으로 근무해오다 이번에 진료1부장에 임명됐으며, 徐東曄(75년 醫大卒)동문은 일반외과 전문의로 재직해오다 의무부이사관(3급)으로 승진, 진료2부장에 임명됐다. 〈信〉



력 사장)=지난 9월 21일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열린 세계원자력사업자협회(WANO)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제7대 회장에 취임함.

▲洪性宙(64년 商大卒·동아건설 사외이사)=지난 9월 10일 서울투신운용 사장에 선임됨.

▲李濤培(65년 法大卒·前문화관광부 차관보)=지난 9월 6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사무총장에 임명됨.

▲李柱晟(65년 大學院卒·성신여대 교수)=지난 9월 1일 성신여대 정보산업대학원장에 임명됨.

▲金仁浩(66년 法大卒·前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지난 9월 8일 사단법인 국가경영전략연구

원 제3대 원장에 취임함.

▲安明京(66년 師大卒·숙명여자중학교 교장)=지난 9월 1일 숙명여자고등학교 교장에 취임함.

▲辛鉉雄(68년 文理大卒·前문화관광부 차관)=지난 9월 6일 대통령자문기구인 새천년준비위원회 상임위

원장에 임명됨.

▲黃斗英(69년 行大院卒·한국새마을금고회장)=최근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諮問委員에 선임됨.

〈9면에 계속〉

미술작품

鄭鎮元 作

(작가 약력)

△72년 모교 미대 응용미술과 졸업

△78년 모교 대학원 졸업

△서울공예대전

△현대미술초대전

△대한민국 공예대전 심사위원

△현재 동덕여대 예술대 교수

「아이」 20×49cm, 옹기토, 1997.



(8면에 이어)

▲朴慶淑(70년 師大卒·후연교육상담연구소장)=지난 9월 5일 교육부 산하 국립 특수교육원장에 임명됨.

▲崔 洸(70년 商大卒·前보건복지부 장관)=최근 열린 국제 재정학회(IIPE)회의에서 임기 3년의 상임운영이사에 선임됨.

▲洪文杓(70년 敎大院卒·명지대 교수)=최근 열린 한국 시문학회 이사회에서 임기 2년의 회장에 추대됨.

▲張基亨(71년 商大卒·대우전자 부사장)=지난 9월 13일 대우전자 사장에 선임됨.

▲李熙國(74년 工大卒·LG반도체 전무)=지난 8월 23일 LG종합기술원 부사장에 선임됨.

▲李啓炯(77년 師大卒·중소기



업청 벤처기업 국장)=최근 산업자원부 생산기술 연구원 연구위원(국장급)

에 선임됨.
▲車炯勳(81년 社會大卒·前KBS PD)=최근 투자정보 인터넷 방송 WOW-TV 대표이사에 취임함.

▲李昌洋(85년 社會大卒·산업자원부 서기관)=지난 9월 9일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에 임명됨.

▲金泰完(44기 ACAD·민족통일 불교협의회 중앙의장)=지난 8월 23일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겸 종교분과 위원회 간사에 임명됨.

행사·출간

▲李信子(55년 美大卒·갤러리 우덕 대표·美術大學同窓會長)=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갤러리 우덕

에서 河東哲·尹東天·鄭尙坤·朴永根·河 媛동문 등 관화작가 12명을 초대하여 「관화의 모험전」을 가짐.

▲鄭然世(57년 工大卒·한국선금엔지니어링 회장·海港會 회장)=지난 9월 2일 해양회 사무실에서 해양수산부 전·현직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함.

▲俞東濬(60년 農大卒·한국단



미사료협회장)=최근 21세기 여성포럼이 주관하는 「만나고 싶은 남자 99인」에 선정돼, 지난 9월 17일 여의도 한강유람선에서 「여성운동 후원을 위한 초가을 밤의 뱃놀이」 행사에 참석함.

▲孫同銖(63년 齒大卒·한세대 총장)=지난 9월 10일 내·외 부인사를 초청, 한세대학교 분관 준공기념 행사를 가짐.

▲河珍圭(64년 工大卒·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최근 일본에서 열린 제10회 한·일 건설기술세미나에 참석함.

▲李玉姬(64년 音大卒·서울류티앙상블 리더)=지난 10월 6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皮虎英(83년 音大卒·바이올리스트)동문 등과 함께 제21회 서울류티앙상블 정기연주회를 가짐.

▲曹相鎬(67년 行大院卒·창조장학회 이사장)=지난 9월 11일 대성학원 강당에서 99년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짐.

▲李貞演(75년 美大卒·SADI 교수)=지난 9월 1일부터 12일까지 금호미술관에서 현대조형작가상 수상기념 「이정연 漆 회화전」을 가짐.

▲朴龍虎(87년 工大卒·(주)엘



콜시너지 대표)=최근 한국종합기술금융으로부터 5억원의 순투자금을 받았으며, 본사를 서울 관악구 봉천7동 1661-4 오너벤처타운 207호로 이전함. (전화: 885-6771)

▲朴宣河(88년 音大卒·성악가)=지난 9월 26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귀국 독창회를 가짐.

▲金祐鎔(7기 AMP·한국광복군



동지회 회장)=지난 9월 21일 한국광복군 창군 59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

를 개최함. (정리=李美連 기자)

서울내과의원 개원

원장: 金 善 美

(90년 醫大卒·97년 전문의 취득)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충동창회관 208호

(전화: 713-7136)



華 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소영무 군(96년 師大卒)·김희진 양(97년 自然大卒)=10월 16일 12시30분

*최동화 군(98년 經營大卒)·박한나 양=10월 16일 14시

*김기영 군(99년 農生大卒)·김율리 양=10월 17일 12시30분

*곽경평 군(96년 經營大卒)·박영수 양(93년 師大卒)=10월 17일 14시

*김동현 군(87년 師大卒)·위호정 양=10월 23일 14시

*최홍준 군(90년 工大卒)·최양주 양=10월 24일 12시30분

*김유진 군(95년 工大卒)·이시은 양=10월 30일 15시30분

*정준수 군(92년 法大卒)·이은주 양=10월 31일 12시30분

*장욱진 군(96년 社會大卒)·정승진 양=11월 6일 12시30분

*김재수 군(95년 工大卒)·권영신 양=11월 6일 14시

*손병근 군(91년 工大卒)·박성애 양=11월 7일 11시

*김태현 군(95년 師大卒)·정미애 양=11월 7일 14시

*안용상 군(89년 工大卒)·최은람 양=11월 7일 15시30분

*어도용 군(90년 自然大卒)·정미경 양=11월 13일 15시30분

*이상헌 군(90년 工大卒)·왕소현 양=11월 14일 11시

*곽연주 군(95년 農生大卒)·황미선 양=11월 14일 12시30분

*원성호 군(99년 人文大卒)·공윤정 양=11월 14일 14시

동창회관 5층 관악홀의 예식에 대한 사항은 하얀드레스(전화 02-716-2230)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바로 잡습니다 -

지난 9월 15일자(제258호) 이동·선임 기사중 국민회의 외교안보특보에 임명된 羅鍾一(63년 文理大卒·前국가정보원 제1차장)동문의 사진은 모교 羅鍾一(52년 文理大卒) 명예교수의 사진이 잘못 게재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사진이 잘못 게재된 두 동문님께 사과말씀 드립니다.



17년간 「총장」 지낸 기록 수립

李相周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장

“관광객 1천만명 시대 준비”

지난 4월 14일 2001년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장에 위촉된 李相周(60년 師大卒)동문을 만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 등을 들어보았다.

— 추진위원회 결성 동기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ASEM회의, APEC 관광장관 회의, 인천국제공항 개항,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가 연이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첫 해인 2001년에는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관광 측면에서 보면 중진국 수준이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국내로 들어온 외국관광객 수가 4백25만명이었습니다. 유치수준으로 보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미국 등에 훨씬 뒤떨어진 32위입니다. 현재 세계의 전체 관광객 수가 6억4천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국제관광기구에서 예측하기를 2020년까지 약 16억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국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 최근 발표한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해외홍보와 해외마케팅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이미지 홍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벌어지는 이벤트를 많이 알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행사를 국제화시킬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신라문화제, 강릉단오제, 부산영화제 등 지자체별로 치러지고 있는 행사를



해외관광객과 연결하여 관광자원화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방문시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도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코리아카드, 코리아 패밀리카드 등을 개발하여 해외교포가 우리나라 방문시 선박, 버스, 기차 등을 자유롭게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국민계몽에 관한 것입니다. 정직한 상거래질서, 화장실의 청결유지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없는 친절 등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우선 외국의 괴테하우스, 베토벤하우스, 로렐라이 언덕처럼 우리나라 京鄕各地에 있는 문화적인 유적지, 유산, 자연물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 우

리나라 관광지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은 물론 호텔, 음식점 등의 위치와 연락처 등을 소개해 해외에서 한국 관광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한편 2001년 1월 1일 인천국제공항 개항식과 연계하여 「한국방문의 해」 개막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날 첫 비행기로 도착하는 기장 및 손님에게 경품을 전달하는 등 멋진 퍼레이드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한 제주도 여름축제, 강원도 눈과 스키의 축제, 대청봉·지리산·한라산 눈꽃축제, 부산 영상음악제, 전라남도 음식축제, 전라북도 소리축제 등 각 지역별 행사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국제적인 잔치로 만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관광객 유치사업의 기대효과.

『6·25전쟁 참전자의 국내 방

문, 해외 교포의 모교 방문, 교포자녀의 연수활동 등 우리나라와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2001년에 관광객 5백70만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90억불의 관광수입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작년의 경우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58억불을 소비했고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 21억불을 소비하여 37억불의 흑자를 거두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보면 외국인 한 사람이 오면 22인치 TV 다섯 대를 파는 정도의 수익성이 있다고 합니다.』

— 외국인의 여러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은.

『외국인이 제일 불편하게 여기는 사항은 언어소통, 교통 표지판, 화장실 청결문제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언어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호텔, 음식점 등에 외국어로 표기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를 방문한 사람 중 일본인이 46%를 차지했으며 작년의 경우 중국인이 21만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한자를 사용하는 나라의 관광객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나라도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는데 우선 중요한 관광지의 표지판만이라도 한자를 병기하는 방향으로 나갈 방침입니다.』

— 추진위원회 구성은.

『KBS 朴權相사장, 새천년준비위원회 李御寧위원장, 월드컵조직위원회 朴世直위원장, 문화일보 李啓謐부사장 등 자문위원 8명, 한국관광협회중앙회 李庚文회장, 전경련 孫炳斗부회장, 서울대 규장각 鄭玉子관장 등 기획·조정분과위원 8명, 행사·홍보분과위원 8명, 상품·안내분

과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문분야 위원들을 좀더 위촉할 예정입니다.』

— 17년간 총장으로 봉직한 강원대·울산대·한림대에 대한 기억은.

『제가 근무했던 대학이 모두 지방에 위치하고 있고 교수, 학생들이 전부 서울지향주의 사고를 지니고 있어 지방대학을 발전시키는데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총장으로 재직한 82년부터 98년까지 우리나라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학생들의 학원소요가 가장 많았고, 교수들이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를 결성해 목소리를 높였고, 사립대의 경우 일반직원들이 노조화 되는 등 학생, 교수, 직원 등 3개 집단이 모두 각각의 주장만 펼쳤습니다. 이 3개 집단을 엮어서 한 방향으로 대학을 이끌어 가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일 고민스러웠던 것은 대학행정이로서 젊은 학생들의 의욕과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등을 충분히 받아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 서울대인에게 한말씀.

『서울대 동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단결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서울대 동문으로서의 Identity(정체성), 동문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활동에서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를 따지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최소한 서울대 출신으로서의 유대의식은 강화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李동문은 현재 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협의회 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위원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겸하고 있다.

(變)



기초과학 중시하는 풍토 조성되길

李泳南(68년 藥大卒)충북대 교수

어

스무레한 새벽인데 어디선
가 패싸움이라도 난 것 같
은 악다구니치는 까치소리
에 열대야로 밤새 뒤척이
다 가카스로 든 잠을 깬다. 몽롱한 정신
으로 베란다에 나가 까치 떼들이 벌이는
소란의 진원지를 찾았으나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털 뒤집어 쓴 생물이라 열대
야가 몹시 힘들어 기승을 부리나 보다.

창 밖에서 밀려드는 짙은 공기가 오
늘도 무더위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
한다. 가까운 계곡에 물을 찾아 나서 탁
족이나 할까 하다가, 새 학기도 곧 다가
오고 학기 중 바쁘다면서 방학 때로 미루
어 놓았던 일 중에서 아직 마무리되지 않
은 것도 있어 피서할 마음을 접었다. 정
해진 장소에서 손 움직여 기구를 쓰며,
실험을 하는 자연계열과는 달리 집, 산,
바다 어디든 마음잡는 곳이 일터가 된다
는 문과계열 동료들을 매우 부러워하면서
출근을 서둘렀다.

연구실이 있는 복도는 평소에도 통풍이
잘 안되는 곳인데, 연구 실험실이 비좁아
실험실 밖 복도로 내놓은 실험 기자재들
이 뿔어대는 열기로 여름이면 아예 찜통
속이 되어버린다.

찜통 복도를 20명쯤 되는 남녀 고등학
생들이 지나간다. 자연과학대학 설립 20

주년 기념 「제1회 전국 고교생 수학·과
학 탐구 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 중의
일부다. 전국 5백여 고교에서 학교장 추
천을 받고 3박 4일의 과학캠프에 참가한
1백50명의 학생들이 땀 흘리며 그들의
과학잠재력을 가름해 보고 있다. 기초과
학도의 꿈을 안고 모여든 청소년들의 눈
망울이 참으로 맑다. 그들의 모습을 대하
는 순간, 신선한 바람 한 줄기가 스치고
지나갔다.

편향된 교육 염려스럽다

선풍기 뒤편거리는 연구실에서 공문도
처리하고 달포 전 있었던 「미생물과 문화
유산보존 학회」에서 수집한 자료를 정리
하고, 쓰다가 밀쳐 둔 논문자료도 다시
검토하면서 연신 덩다고 짜증을 내었다.
그러다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냉방시설
도 미흡한 곳에서 각자의 탐구과제에 열
중하며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워가는 과학
캠프의 학생들을 떠올리니 선풍기 바람이
라도 일고 있는 연구실이 덩다고 짜증내
는 내 자신이 조금은 경박스럽게 느껴졌
다. 괴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자연과 사물의 질서를 관찰하며, 기초과
학의 본질을 터득하려는 저들은 분명 21
세기 우리 과학계의 전인차가 되겠지. 아

주 대견스럽다.

그러나 목전의 이익을 우선하는 시장경
제 논리를 도입한 교육정책아래 조성되는
편향된 한국의 과학교육 환경이 한창 자
라나는 과학영재들이 품고 있는 기초과학
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킬 것 같은 우려가
앞선다.

과학영재 보며 위안 삼아

능소화 및 노을 배경에 실루엣으로 모
습을 드러내는 먼 산아래 교회의 뿔족 지
붕이 보이는 창가에서 15~16년전 영국
에서 있었던 노생물학자와의 만남을 떠올
렸다. 그분은 열살 전후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처음 본 양증맞도록 작은 바다 게
가 신기해 평생 그 바다 게의 다리털만을
연구, 게의 진화를 밝힌 외국의 기초과학
자인데, 한 사람이 평생 한 우물 파기식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초과학을 매우 중
시하는 영국의 교육풍토가 참으로 부러웠
다.

일몰인데도 대기의 열기는 줄어들지 않
는다. 과학캠프에 참여한 젊은이들 각자
가슴에 품고 있는 과학도의 꿈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라면
서 귀가 길에 나섰다.



15~16년전

영국에서 만난 생물학자는
평생 바다 게의 다리털만을
연구해 게의 진화를 밝힌
외국의 과학자인데,
한 사람이 평생 한 우물
파기식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초과학을 중시하는 영국의
교육 풍토가 부러웠다.

남과 어울리되 자기 색 잃지 말아야

金景姬(86년 音大卒)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

습

관처럼 오늘도 출근길에
신호가 길어질 때면 고개
를 길게 내려 하늘을 본다.
오늘처럼 회색구름이 잔뜩
하늘을 가리고 있을 때도 물론이지만 티
하나 없이 코발트 빛 본래의 하늘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흰구름이 함께 어울
릴 때에도, 하늘을 볼 때마다 아직도 향
상 마음이 설렌다.

모든 하늘이 다 아름답지만 특히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하늘은 맑은 코발트색에
흰구름이 섞일 것처럼 풀어져 있을 때이
다. 여름날의 뭉게구름도 물론 시원하고
깨끗하지만, 어쩐지 하늘과 구름이 따로
분리되어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구
름이 다 풀어져서 마치 하늘과 섞일 것
같지만 결코 섞여있지 않은 상태가 나에
게는 가장 아름답게 느껴진다.

「大同」, 「和而不同」의 차이

여러 해 전에 선배언니에 이끌려 따라
갔던 전원풍경의 카페일 집에서 「Haji
mountain」이라는 커피 카페일을 마신 적
이 있었다. 별다른 맛도 아니었고 그저
다른 카페일과 비슷한 그저 그런 것이었
지만 짙은 커피색의 술 가운데 빠죽이 나
와있는 커다란 얼음 위로 부어준 하얀 액
상 프림이 서서히 커피색 속으로 번져 가
는 모습이 어쩌나 아름다웠는지.

그 맛은 기억에 없지만 그 빛깔은 지금
까지 잊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것도 커
피 빛깔과 액상 프림의 흰색이 섞이고 있
을 때가 아름다웠지 다 섞여 버리고 났을
때는 그만 조금 흐려진 커피 빛깔이 되어
버렸을 뿐이다.

구름도 하늘과 하나로 섞이지도, 완전
히 분리되지도 않은 그 상태가 가장 아름
답다. 남과 함께 조화롭게 어울리되 자기
색을 잃지 않고 있는 그 상태.

우리 음악의 특징 가운데 하나도 바로
「조화롭게 어울리되 한가지로 섞여버리
지 않는다(和而不同)」라는 것이다. 여러
악기가 거의 비슷한 선율을 연주하고 있
어도 마치 무지개와 같이 자기 색을 잃지
않으면서 서로 아름답게 어울리는 그런
음악이 우리 음악이다.

똑같은 곡을 합주하면 아름답게 어울리
는 그 조화로움이 좋고, 독주로 연주해도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며, 또 마음에
드는 악기 두어 개만 함께 연주해도 충분
히 훌륭한 음악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음악이다. 여러 악기 가운데에서도 자기
목소리만을 내지 않으면서 그 색을 잃지
않고 혼자서도 충분히 그 색을 발할 수
있는.

어릴 때에는 「한가지가 된다(大同)」는
것이 참 좋았었다. 남과 내가 한가지로
섞여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와 분위
기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

을 닮아가면서 많이도 어울렸었다. 하나
가 된다는 게 좋았고, 내가 좋아하는 사
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좋았
었다.

이제 나이를 먹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
서 보니 남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신의 빛깔로 자신의 목소리만을
내고 있어 결코 섞이지도 않으면서 서로
어울리지도 않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건
자기 색이 없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보
다 더 마음 아픈 일이었다.

하늘과 구름, 무지개처럼

우리 조선 후기의 학자 洪萬宗이 평생
지킨 「君子五不」 가운데 그 첫 번째 —不
인 「남을 따라 내 지조를 바꾸지 않는다」
는 의미를 너무 지나치게 해석한 나머지
남에 대한 배려마저도 하지 않는 나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어느새 자
기 색만을 고집하여 남과 어울리기가 더
욱 어려워져버리는 경직된 사고를 그만
가지게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누군가 나이 마흔이 되면 자신의 얼굴
에 책임을 지라고 했었다. 이제 마흔을
바라보면서 생각해보는 것은 내가 가진
빛깔을 곱게 가꾸기는 하되 다른 빛깔에
게 자신의 빛깔을 배려하여 서로 「조화롭
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다.



마음에 드는

악기 두어개만 함께
연주해도 충분히 훌륭한
음악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음악이다.
여러 악기 가운데에서도
자기 목소리만을
내지 않으면서
그 색을 잃지 않고
혼자서도 충분히 그 색을
발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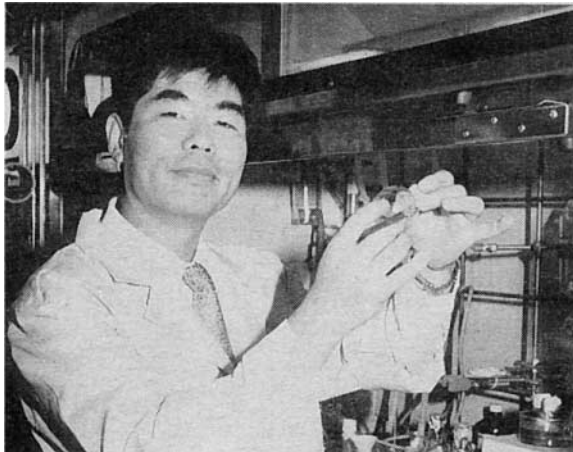
SK케미칼 金大起생명과학연구실장

국내 첫 위암 항암제 「선플라」 개발

“관절염 치료제 등 신약연구에 도전할 터”

『이번 신약을 계기로 평생 3가지 이상의 새로운 약을 개발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내 최초 신약 1호로 공인한 위암 항암제 「선플라」를 만든 SK케미칼 생명과학연구실장 金大起(77년 藥大卒) 동문의 포부는 당차지만 자랑스럽기 그지없다.



신약이란 화학구조 등이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의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 의 약품을 말하며, 하나의 신약이 탄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년 내지 15년정도이며 연구 개발비만 해도 1천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국내 제약산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킨 쾌거로 평가되고 있는 「선플라」의 개발에는 9년이라는 시간과 81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됐다고 한다.

부산 개금동에서 트럭운전을 하던 아버지의 2남2녀 중 장남인 金동문은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인해 고학으로 고교를 졸업했으며, 新藥이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던 73년 우리나라 신약개발의 개척자가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모교 약대에 입학했다.

당시 모교 유기약품제조교실 朱尙涉(69년 藥大卒·모교 교수)교수 연구팀의 일원으로 활약하며 신약개발의 기초를 배운 金동문은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로 군복무를 마친 후 잠시 자신의 꿈을 접고 방배동에 「신신약국」을 차렸다.

『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부모님에게 경제적 도

움도 드리고 유학비용도 마련할 겸 차린 약국이 의외로 잘돼 한해에 아파트 한 채 값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국 경영이 목표가 아니었기에 과감하게 정리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82년 유학길에 오른 金동문은 86년 뉴욕주립대에서 항암제 관련 논문으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美 ICN-핵산연구소에서 신약개발에 관한 실무를 익혔다.

87년 귀국 후 한국화학연구소에 일하던 金동문은 2년후 항암제 개발에 주력하던 SK케미칼로 옮겨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金동문이 이번 신약을 탄생시키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임상시험 대상 환자를 구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암환자는 많지만 임상시험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인식이 좋지 않아 지원자가 별로 없기 때문. 게다가 임상환자는 더 이상 수술이 불가능하고 간장·신장의 기능이 정상이어야 하는데 이런 조건을 가진 환자를 찾기는 정말 힘든 일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6년간의 임상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된 데에는 모교병원 金潞經(64년 醫大卒)교수를 비롯한 동문 의사들의 도움이 컸다고 金동문은 말했다.

『사실 이번 신약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은 제가 했지만 그것을 완제품으로 만들기까지 함께 노력한 甘鍾植(88년 藥大卒)·安宰奭(90년 藥大卒)동문과 대외적으로 애써준 金起協(71년 工大卒)·SK케미칼 중앙연구소장 동문 등 우리 연구원 모두의 성공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자신과 함께한 연구팀의 공로를 잊지 않는 金동문은 앞으로 생약을 이용한 관절염 치료제를 비롯한 신약개발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라고.(美)

동문기업



탐방

③ (주)동일기술공사

새 천년 엔지니어링史 선도의 주역

65년 창립, 「대통령 산업포장」등 기술력 인정받아

『항상 최고의 품질로 고객만족 및 선진 기술개발에 정진한다』 이는 21세기 엔지니어링산업을 보다 합리적인 측면, 보다 새로운 지향점을 선도해 나가려는 (주)동일기술공사의 견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국내 기술용역의 초창기인 65년 기술용역업체로 창립한 (주)동일기술공사는 강력한 리더십과 토목분야의 오랜 경륜을 겸비한 黃海根(60년 工大卒·한국건설감리협회 회장)회장 이하全体员工들의 유기적 단합을 통해 국가기간산업의 토목

및 환경과 관련한 총 3천여건의 엔지니어링사업을 탁월히 수행해온 종합엔지니어링업체의 독보적 기업이다.

지난 30여년간 黃회장은 신기술개발 및 고객만족의 중요성을 예견하여 마침내 92년에 기업부설기술연구소를 설립, 「제강전로 슬래그에 의한 하수 소화 슬러지의 고화처리방법」 및 「정수장 응집공정의 연속적 감시를 위한 자동 파이롯트 필터시스템」 등의 특허와 각종 신기술 획득을 통해 기술개발에 대한 강한 집념을 표출시켜 왔으며, 97년에는 엔지니어링업체 최초로 KS A/ISO 9001인증을 획득, 엔지니어링사업의 품질경영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현재 시공중인 낙단대교의 조감도

특히 97년 한국건설감리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黃회장은 부설시공에 대한 건설감리의 중요성을 인

식, 「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회원사들의 감리제도 철저준수, 지속적 기술교육 및 윤리적 측면 부각 등을 통해 부설공사의 발생빈도 저하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한편 창립 이래 (주)동일기술공사 특유의 기술력에 대한 대외적 공신력은 70년 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국무총리 표창을 시작으로, 84년 건설부장관 표창, 92년 대통령 산업포장, 98년 해양수산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면서 현재까지도 업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최근에는 「낙단대교 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진주~통영간 건설공사(22공구) 설계시공 일괄 입찰 실시설계」, 「신공항현장 진입도로



黃海根회장

기본설계」,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공사 기본설계」, 「경춘선 복선전철 7공구 건설공사 T/K 실시설계용역」 등 도로 및 철도분야의 터키사업에서 모두 1위를 차지, 그 탁월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토목구조, 도시계획, 상하수도, 환경, 항만 등의 분야에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완벽히 수행함으로써 국가기간산업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기술력은 곧 국가경쟁력이다. 업계 최고를 자랑하는 (주)동일기술공사의 기술력은 바로 강력한 맨파워를 근간으로 한다. 黃회장 이하 李光珉(63년 工大卒)부회장, 李昌培(58년 工大卒)부회장, 趙相河(64년 工大卒)사장, 劉駿相(58년 工大卒)사장, 金大河(74년 工大卒)부사장, 朱秀日(65년 工大卒)부사장, 明桂福(60년 工大卒)부사장, 柳革新(69년 農大卒)부사장, 金鎮源(67년 文理大卒)고문, 李在京(57년 工大卒)고문, 金容燾(74년 工大卒)전무, 權奇珍(81년 工大卒)상무, 李廷義(83년 工大卒)이사, 崔寧桓(85년 工大卒)이사 외 많은 동문들이 몸담고 있으며, 동시에 수많은 전문분야별 기술사들이 함께 하고 있어 (주)동일기술공사가 자랑하는 최고 기술력의 원천을 가능케 한다.

특히 黃회장은 지난 7월 재단법인 관악회에 특기장학금 5천만원을 출연, 장학사업을 통한 우수후학 양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엔지니어링은 21세기 고도의 기술 사회를 이끌어갈 지식 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이다. 항상 최고의 품질로 고객만족, 선진기술개발에 정진하는 (주)동일기술공사는 새 천년 엔지니어링史에 「東」이라는 큰 획을 남기고자 오늘도 선진기술개발 및 품질혁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信)

의과대학

「자랑스러운 의대인」 2명 선정



李회장이 韓萬壽(右)에게 국내부문을 시상했다.

醫科大學同窓會(회장 李吉女)는 지난 9월 8일 모교 의대 강당에서 제9차 「동창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朴熙伯·沈英輔·池三峰부회장, 李炳勳총무이사, 모교 朴容眩 병원장 등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제13회 동기회 회원 80여명이 참석했다.

최고산업전략과정

관악구내 경로당과 자매결연 맺어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 로타리클럽(회장 鄭八道)은 지난 9월 6일 모교 호암교수회관에서 모교 공대 李長茂학장, 관악구청 민무기 생활복지국장, 본회 李世震사무총장 등 각계 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겸한 「관악구청 관내 경로당 추석명절 성금전달 및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鄭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웃의 평화는 곧 사회의 안녕과 국가 질서유지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오늘 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사랑의 결실로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金宗勳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관악구내 경로당 5곳과 자매 결연식을 맺고 추석명절 성금으로 5백만원을 전달

李회장은 축사를 통해 「의학의 불모지였던 1950년대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지금의 발전을 일궈낸 13회 동기회 여러분의 졸업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제 현직에서 물러난 많은 동문들이 사회에 봉사하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자랑스러운 서울 의대인」 시상식에서 국내부문에 韓萬壽(59년卒·모교 진단방사선과 교수)동문, 해외부문에 俞泰俊(59년卒·테네시大 의대 알레르기 면역내과 교수)동문이 각각 수상했다.

기념식을 마친 동문들은 모교 金仁圭교수의 안내에 따라 대학 본부 및 대학병원 등 교내 시설을 참관하며, 모처럼 방문한 모교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鄭회장(左)이 경로당 대표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신입회원 소개 및 인사에 이어 2000년 7월부터 임기를 맡게될 차기 회장에 李淳鍾(66년 法大卒·5기 AIP·(주)한화 대표)동문을 새로이 추대했다.

同會는 모교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을 졸업한 동문들로 구성, 1997년 11월에 창립되어 각종 봉사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약대 23회

졸업 30주년 기념 여행 다녀와



약대23동기회(회장 韓龍男)는 지난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충주호와 단양으로 졸업 30주년 기념 여행을 다녀왔다.

동문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여행에서 同會는 첫날 청풍문화재 단지를 견학했으며, 이어 26일엔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정방사 산책과 교수동굴 견학 등의 시간을 가졌으며, 다른 팀

은 동문 상호간의 우정을 재확인하는 뜻에서 동문 골프시합을 가졌다.

특히 이날 여행에서 동문들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모교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경제학과 27회

정기모임 가져

경제학과27동기회(회장 李煌培)는 지난 9월 1일 역삼동 소재 「금모래」 한식당에서 정기모임을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미국서 활동하다 귀국한 全光宇동문과 강원도 춘천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洪性夏동문, 포항시장인 鄭章植동문 등 그동안 잘 만나지 못했던 동문들이 대거 참석, 동문 상호간의 우의와 정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모임예정

제어계측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동창회(회장 李旻武)는 오는 10월 17일 정오 모교 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888-8374)

법대 33회

법대33동기회(회장 崔成昌)는 오는 10월 23일 오후 4시 모교 법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졸업 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535-0341)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동창회(회장 李錫條)는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 모교 체육관에서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880-7806)

법대 기독교동문회

법대 기독교동문회(회장 鄭相鶴)는 오는 10월 25일 오후 7시 신사동 소망교회에서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528-5200)

불어교육과

불어교육과동창회(회장 鄭仁衡)는 오는 10월 30일 오후 4시 모교 교수회관에서 불어교육과 창립 40주년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880-7690)

토목공학과

토목공학과동창회(회장 郭永秘)는 오는 11월 7일 오전 10시 모교 교수회관에서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880-7358)

법대 82회

모교 발전기금 1천만원 출연



법대82동기회(회장 徐元宇)는 지난 9월 4일 모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입학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맞아 同會는 모교 근대법학 100주년 기념관에서 그동안의 모교 및 법과대학 현황에 대한 비디오 관람을 가졌다.

이날 徐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반세기의 세월이 흘러 이렇게 모교에서 재회하니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同會는 모교 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출연했으며, 참석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한편 同會의 명칭인 82동창회는 단기 4282년 모교 법대에 입학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붙여졌다.

시드니지부

모교 총장 초청 모임

호주 시드니지부동창회(회장 鄭文基)는 지난 9월 9일 캐피탈호텔에서 모교 李基俊총장과 朴泰鎬국제교류센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환태평양 총장회의」 참석후 이 자리에 참석한 李총장은 모교 현황 및 BK21관련 정책 등을 소개했으며, 2002년부터 시행예정인 무시험 입학전형에 관해 동문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장장 3시간에 걸쳐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다가오는 21세기의 모교와 동창회의 건승을 빌었다.

특志 및 基金獎學會 出捐同門과 篤志家 不忘錄

특지장학회는 1구좌에 5천만원을
출연받아서 총동창회 장학재단인
「관악회」의 관리하에 출연자가
직접 선정한 장학생에게 출연자의
명의로 영구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악금 출연사 永平不忘錄

특지 및 기금장학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총동창회 사무처(전화: 702-2233)로 연락주시면 안내 브로셔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13회

「합춘회관」 건립기금 쾌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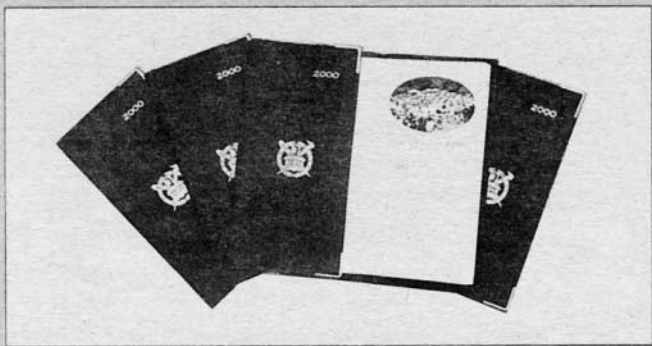
의대13동기회(회장 姜熙南)는 지난 9월 8일 의과대학 강당에서 졸업 4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날 姜회장은 그동안 십시일반으로 모은 모교 발전기금을 의과대학 李正相학장에게 전달했으며, 합춘회관 건립기금을 李吉女의대동창회장에게 쾌척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동안 변화된 의과대학 건물과 모교 병원 등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교 현황에 관해 듣는 시간도 아울러 가졌다.

한편 同會는 이날 저녁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만찬을 나누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동문 상호간의 우정과 단합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2천년 설계, 포켓용 DIARY에 하십시오



본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급가족으로 양장제본하고 금박과 금장을 입힌 「포켓용 DIARY」를 제작,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설계와 구상을 동창회 DIARY에 기재하여 멋진 2천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동창회 DIARY는 모교 발전과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연회비를 납부해 주신 동문(이사, 일반 포함)여러분께 11월 중순부터 우송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동창회를 사랑해 주시는 동문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총동창회 사무처

모교소식

「BK21」에 12개 사업 선정돼

과학기술·핵심분야 도약 계기

지난 8월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두뇌한국 21사업」의 최종 선정결과, 모교가 과학기술분야 12개 사업단 모두와 핵심분야 23개 가운데 18개 사업단을 석권,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탈바꿈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단(팀)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분야 △정보기술 △생물 △기계 △재료 △화학 △의생명 △농생명 △물리 △화학 △기타(지구과학·수학·건설 기술)

■핵심분야 (인문·사회분야) △경영학 △가정학 (기초과학분야) △통계학 △가정학 (응용과

학분야) △건축공학 △산업공학 △원자력공학 △조선공학 △간호학 △치의학 △생물약학 (예·체능분야) △체육

두뇌한국 21사업은 정부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연간 2천억원씩 7년동안 모두 1조4천억원을 투자,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연간 2천억원 중 과학기술분야 대학원중심대학 육성사업에 9백억원, 인문사회 육성사업에 1백억원, 지역중심대학 육성사업에 5백억원, 대학원 전용시설 구축사업에 5백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모교 분당병원

후원회서 건축기금 모금 나서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노인전문병원인 모교 분당병원의 준공연기와 관련, 지난 9월 28일 연건캠퍼스에서 「분당 서울대병원 발전후원회」 발기인 대회와 창립대회를 열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병원 건축기금 모금에 나섰다.

이날 대회에서 후원회장으로 權舜赫(47년 醫大卒·성균관대 재단이사장)전임 총장을 선임했다. 또한 姜信浩(52년 醫大卒) 동아제약 회장, 閔丙峻(56년 師大卒)한국광고주협회 회장, 金光雄(62년 法大卒)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孫吉丞(63년 商大卒)SK그룹 회장, 玄在賢(71년 法大卒)동양그룹 회장 등 30명

을 이사로 선임했으며 모교 宋丙洛부총장과 朴容晔병원장은 당연직 이사를 맡게 됐다.

분당병원은 2000년 개원에정이었으나 재원부족으로 2002년으로 준공이 연기된 상태다.

모교 병원

진료비 카드로 가능

응급실에만 국한되던 병원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이 치료비와 입퇴원비, 외래진료비, 건강검진비로 확대되고 있다.

비씨카드와 서울대병원은 지난 8월 9일부터 서울대병원의 모든 진료비를 카드로 수납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임 음대 학장에
金 旻교수 취임

지난 9월 1일 음악대학 신임 학장에 기악과 金 旻교수(사진)가 취임했다.

金학장은 64년 모교 음대 기악과를 졸업하고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바이올린과를 졸업했으며 81년 모교에 부임, 음대학장보 등을 역임했다. (變)

공대 실험실 폭발사고
대학원생 3명 희생

지난 9월 18일 오전 모교 공대 원자핵공학과 실험실 폭발사고로 중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박사과정 金珪永(93년 工大卒)·金永煥(97년 工大卒)동문과 석사과정 洪英傑(99년 工大卒)동문이 유명을 달리했다.

모교는 유족대표들과 논의를 거쳐 장례식을 모교 공과대학장장(장례위원장 李長茂 학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하고 21일 오전 6시 모교 병원에서 영결식을, 오전 8시 모교 관악캠퍼스 정문에서 노제를 열었다.

한편 이번에 숨진 金珪永 동문의 부친 金大天(63년 文理大卒·태광산업 고문)동문은 『못다 한 아들의 꿈을 후배들이 이루어주길 바란다』며 보상금 전액을 「김태영 장학금」으로 모교에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定年(名譽)퇴임교수 프로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교에서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교수 18명이 지난 8월 31일 정년(명예)퇴임을 맞이했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趙 俊 學 교수
영문학

화용론의 연구업적 뛰어났다

34년 경기도 연천 출생인 趙俊學교수는 57년 모교 문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 82년 미하와이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7년 모교 여학연구소 전임강사로 부임한 趙교수는 「한국어와 영어의 문법구조 비교연구」, 「화용론과 공손의 규칙」 등 다수의 논문과 「시사영어」 등 많은 저서를 출간했다.

趙교수는 모교 재직시 인문대학 교무담당학장보, 여학연구소 소장 등을 맡아 대학 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며, 특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 한국영어영문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발전과 한국영어영문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국내 철학계 발전에 큰 기둥

34년 대전에서 출생한 蘇光熙교수는 57년 모교 문리대 철학과를 졸업, 77년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蘇교수는 67년 인문대 철학과 전임강사로 부임, 형이상학과 존재론 등에 관한 강의와 연구를 통해 철학의 핵심분야를 후학들에게 소개했으며, 「시간과 시간의식」, 「시간과 인간의 존재」, 「논리의 언어와 존재의 언어」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존재와 시간」, 「시의 철학」 등 다수의 번역서를 출간, 국내 철학계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蘇교수는 한국철학회 회장, 한국하이데거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蘇 光 熙 교수
철학



具 永 祿 교수
정치학

국제정치학 발전 기초 다져

34년 경남 함안에서 출생한 具永祿교수는 56년 미국 캔터키 웨슬리안대 경제학과를 졸업, 66년 미미시간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8년 모교 문리대학 정치학과 조교수로 부임한 具교수는 국제정치학 분야 연구에 주력하면서 「인간과 전쟁」, 「한국의 국가이익」, 「국가흥망론」 등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具교수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통일원 정책평가위원, 세종연구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사회학 연구의 권위자

34년 부산 출생인 金一鐵교수는 57년 모교 문리대 사회학과를 졸업, 70년 미국 북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 사회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金교수는 70년 모교 신문대학원 전임강사로 부임, 거시적 구조론의 이론적 발전의 기초가 되는 「지역사회와 인간생활」이라는 연구분야를 새로이 개척했다.

金교수는 인도네시아 정부 농촌개발자문관, 서울시 및 농협중앙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사회구조와 사회행위론」, 「한국사회와 재구조화과정」, 「일본농촌과 지역활성화운동」 등 10여권의 저서와 1백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金 一 鐵 교수
사회학



車 載 浩 교수
심리학

모교 심리과학연구소 창설

34년 경기도 여주에서 출생한 車載浩교수는 56년 모교 문리대 심리학과를 졸업, 71년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車교수는 74년 모교 문리대학 조교수로 부임해 한국인과 한국 사회에 대한 심리적인 연구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車교수는 「문화설계의 심리학」 등의 저서와 「파노라마적 사회심리학」, 「한국인의 성격과 의식」 등 다수의 논문을 출간했다.

재직중 車교수는 사회과학대학 부설 심리과학연구소를 창설하기도 했다.

수학계 대들보로 자리매김

34년 함경남도 함흥 출생인 高英昭교수는 60년 모교 문리대 수학과를 졸업한 후 67년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高교수는 69년 모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전임강사로 부임한 이래, 대수학 분야 등의 열성적인 강의와 꾸준한 연구를 통해 후학양성과 한국 수학계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高교수는 모교 재직중 수학과 학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관련학계와 대학 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며, 「미적분학」, 「위상수학」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高 英 昭 교수
수학



金 元 銖 교수
경영학

국내 마케팅에 이정표 제시

34년 부산에서 출생한 金元銖교수는 58년 모교 상과대학 상학과를 졸업했으며, 75년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3년 상과대학 전임강사로 부임한 金교수는 우리나라 마케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국내 경영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金교수는 「마케팅관리론」, 「경영윤리론」, 「경영학사」 등 40여권의 저서와 「한국유통구조의 변화」 등 9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한국경영학회 회장, 한국마케팅학회 회장 등을 역임, 한국경영학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농가 권익증진에 혼신 쏟아

34년 충북 영동 출생인 高光出교수는 58년 모교 농대 농학과를 졸업한 후 69년 충남대 대학원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高교수는 68년 농대 원예학과 전임강사로 부임, 한국과수의 분류와 유연 관계에 관한 연구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과수전정생리」, 「포도저장양분 이동에 관한 연구」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새마을기술봉사단과 한국과수협회를 창설, 한국과수산업발전과 농가의 권익 증진에 많은 공헌을 했다.



高 光 出 교수
식물생산과학



劉槿俊 교수
서양화

미술이론 교육의 기틀 마련

劉槿俊교수는 58년 모교 미대 미학과를 졸업, 60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63년 미대에 부임한 劉교수는 미술대학의 근대적 교육체계를 정립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미술행정·미술경영·미술비평분야를 선구적으로 개척, 미술이론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

재직중 모교 박물관 현대미술부장 등을 역임한 劉교수는 대학원 협동과정과 대학원 과정에 미술이론전공을 신설, 미술대학을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대학으로 변화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한국곤충학회 중추적 역할

34년 황해도 금천에서 출생한 柳孝錫교수는 68년 고려대 생물학과를 졸업, 76년 美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곤충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87년 농생대 농생물학과 조교수로 부임한 柳교수는 모기방역 종합적 방제체계확립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한국곤충명집」 등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재직중 농생물학과장, 교수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한 柳교수는 한국곤충학회 회장, 한국곤충학회·한국응용곤충학회 공동명집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관련학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柳孝錫 교수
응용생물화학

한국 보험법 분야의 개척자

34년 충남 서천 출생인 梁承圭교수는 60년 모교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 75년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8년 법학연구소 전임강사로 부임한 梁교수는 「보험법」을 비롯해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으며, 한국 보험법의 개척자로, 보험법 전 분야에 걸친 이론을 정립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재직중 사법학과장, 법학연구소장을 지낸 梁교수는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보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중용」·「비판」의 헌법학 제시

34년 경남에서 출생한 權寧星교수는 57년 모교 법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74년 독일 괴팅겐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77년 법대 공법학과 부교수로 부임, 「헌법학개론」, 「헌법학원론」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통해 한국헌법학의 기초를 마련했다. 특히 「중용」과 「비판」의 헌법학을 통해 입헌주의와 법치주의가 한국에 정착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權교수는 법과대학 공법학과장, 법학연구소장, 한국방송통신대 교무처장 및 학생처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權寧星 교수
법학

한국행동과학연구의 창시자

34년 마산에서 출생한 李星珍교수는 57년 모교 사범대 교육학과를 졸업, 67년 美켄사스대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70년 사범대 교육학과 조교수로 부임한 李교수는 국내 처음으로 행동수정의 이론과 기법을 도입, 보급하는데 크게 앞장섰다.

또한 교육 및 심리검사의 연구와 올바른 활용에 대한 교육심리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李교수는 한국교육심리학회, 한국가운슬러협회, 한국행동분석학회 창립회장 등을 역임했다.

방송언어의 새로운 체계 확립

34년 충북 옥천 출생인 朴甲洙교수는 58년 모교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65년 대학원에서 문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朴교수는 69년 사범대 국어교육과 전임강사로 부임해 국어학 및 국어교육학 일반, 문체론, 방송언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연구 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한국 방송 언어론」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朴교수는 국어심의위원, 방송심의위원, 공익광고협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이중언어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朴甲洙 교수
국어교육

국내 체육학 발전의 산 증인

34년 서울 출생인 盧熙應교수는 57년 모교 사범대 체육교육과를 졸업, 88년 국민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군사관학교 교관을 거쳐 68년 교양과정부 전임강사로 부임한 盧교수는 체육사에 관한 연구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체육학의 학문적 기초를 다졌다.

국내외 학회지에 2백여편의 체육사학관련 논문을 발표했으며, 중·고등학교 체육교과서 및 경기지도서 등 20여종의 저서를 개발했다.

盧교수는 한국체육사학회, 동북아시아체육사학회 등을 역임했다.

한국 음악상 수상등 경력 다양

34년 서울에서 출생한 李成均교수는 57년 모교 음대 기악과를 졸업, 59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61년 음대 기악과 전임강사로 부임한 李교수는 피아노 실기와 연주를 통해 후학 양성과 음악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특히 97년에는 한국음악가협회 주관 한국 음악상(피아노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재직중 전공주임, 기악과장, 음악대학장을 역임한 李교수는 한국피아노협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李成均 교수
기악

신경과학계 이끌어 온 주역

34년 서울 출생인 李尙馥교수는 59년 모교 의대를 졸업한 후 67년 프랑크푸르트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李교수는 72년 의대 조교수로 부임, 우리나라 신경과학계를 이끌어왔으며,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다.

李교수는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 한국홀트클럽회장, 아세아·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 명예회장, 미국신경학아카데미 회원 등을 역임했다.

李교수는 현재 한국치매 연구회와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회장으로 재직중이다.

보건의사회학회 초대회장 역임

36년 중국 동흥에서 출생한 鄭慶均교수는 58년 모교 문리대 사회학과를 졸업, 82년 일본 동경대에서 보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70년 보건대학원 전임강사로 부임한 鄭교수는 보건정책 및 의식산업 분야의 야간 복수과정을 개설하기도 했으며, 보건의사회학 분야의 강의와 연구를 통해 보건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에 명예퇴임한 鄭교수는 한국보건의사회학회 초대회장, 한국에이즈연맹회장, 한국장묘문화개혁 범국민 협의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보건학의 필요성을 사회에 알리는데 공헌했다.



鄭慶均 교수
보건학



梁承圭 교수
법학



李星珍 교수
교육학



盧熙應 교수
체육교육



李尙馥 교수
의학

동문소식

新刊

■우리가 사는 길

—李應百 著



사단법인 한국어문화
李應百 (49년 師大卒·
모교 명예교수)이사장이
「기 다 름」,
「고향길」에

이어 수필집을 펴냈다.

생활 주변에서 눈에 띄는 것
과 전통문화에 관련되는 주제로
6장에 걸쳐 60여편을 선보였다.
(미리내刊·값8,000원)

■생명윤리와 안락사

—文國鎮 著

고려대 文國鎮(55년 醫大卒·
대한법의학회 회장)명예교수가

의료와 의사를 문화적인 시각에
서 조명한 책자를 펴냈다.



한계적 의
료의 속성과
불가피성을
논하고 인공
수태 불임
술, 낙태 등
에 대한 윤
리성을 담았
다. (여문각刊·값15,000원)

■出版雜誌研究

—出版文化學會 編著



출판문화
학회 (회장
全泳杓·60
년 文理大
卒·신구대
교수)가 학
회보 통권
제7호를 발
간했다. 회장의 「IMF와 市場
開放에 따른 雜誌業界의 對應
策」등 총 8편의 연구논문을 수
록, 국내 출판·잡지·인쇄산업의
문제점과 21세기 출판업계가 나
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경인문
화사刊·값8,000원)

■地政學

—任德淳 著



충북대 지
리학과 任德
淳(62년 師
大卒) 교 수
가 회갑기념
으로 지정학
의 기원, 성
격, 개념 등
을 정치인, 언론인은 물론 일반
인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한 이
론서를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조건을 제시하고 해
양세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
하고 있다. (법문사刊·값10,000
원)

■정직한 캐럴 빵집

—申馨植 著



전북대 申
馨植 (79년
工大卒)교수
가 「빈 들의
소리」, 「추
억의 노래」
에 이어 세
번째 시집을

펴냈다.

어릴 적 고향을 향한 그리움,
미국에서의 연구교수 생활, 러
시아 문학기행 중의 느낌 등 60

여편의 감미로운 작품이 담겨
있다. (내일을 여는 책刊·값5,
000원)

(정리=安興燮기자)

지난 6월 20일 본회 金在淳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뉴욕에
서 개최된 재미동창회 제8차 평의원회의에 참석하고, 남가
주·뉴욕·워싱턴DC·뉴잉글랜드 등 4개 지부를 순방, 간담회
를 가진 바 있다. 순방단 귀국후 재미동창회보 崔浩(67년 文
理大卒)편집인이 보낸 서신과 金在淳회장의 답신을 간략히
소개한다.



金在淳회장님께

개교 이후 50여년동안 서울대를
거쳐 나온 탁월한 능력을 가진 동문
들이 각자 전문분야에서 각고의 노력
으로 실력을 쌓아 뛰어난 성공과 업
적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 결과를 모교와 동창회, 동
문들과 share하기보다는 자기 증명

과 만족을 확인하는 범주안에 그쳤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미주동창회의 주류를 이루는 동문들은 50년대 6·25이
후 유학 온 동문들로부터 80년대까지 이민 온 동문들, 즉 나
이로 보아 70대, 60대, 50대로서 은퇴를 했거나 해야되는 나
이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오랜 노력과 성취 끝에 은퇴를 맞을
때,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을 무언가 사회나 국가에 유익하게
써야겠다」는 생각들을 자연히 갖게 됩니다. 동문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마음들이 결국 동창회라는 모임을 통해
집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동창회라는 공동체 개념
이 없이 살아온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모으는 작업이 힘들 뿐
아니라 매우 느립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각 지역에 짧게는 2~3년부터 길게는 20
~30년 전부터 동창회가 있어 왔고, 총동창회가 늦게나마 생
겨 동창회라는 공동체의 형태가 전국의 모든 동문들의 머리
속에 점차 뿌러져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창회보를 통
해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에 속한다는 의식이 점점 널리 그리
고 강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방문 중 역설하신 金회장님의 제의*는 이러한 시점에
서 조용히 그러나 상당히 강도있게 잘 받아드려졌다고 생각
됩니다. 앞으로 吳仁錫회장을 비롯해 여러 영향력 있는 분
들이 함께 추진해 나가시리라 생각하오며, 미력이나마 저도
적극 힘을 보탬 것입니다.

崔浩 올림

*金회장님의 제의 : 재미동창회 제8차 평의원회의에서 연설
한 Keynote Speech의 일부-미국내 거주하는 중국인 사회
에 「100人 위원회」가 있듯이,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韓美
양국의 진실되며 힘있고 영향력을 가진 人士들의 모임 즉 국
제인맥 network이 우리 서울대인들에 의해 initiate되기를
바란다.

崔浩동문께

최형의 우정어린 따뜻한 편지 반갑
게 받았습니다.

小生이 貴地를 다녀온지도 벌써 세
달이 되었지만요. 많은 동문들의 열성
과 사랑으로 금년의 재미 총동창회도
잘 치루었던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吳仁錫회장을 비롯한
Leader들의 勞苦와 부담이 컸습니다.

최형의 편지를 읽어가면서 이번 제가 방미 중에 역설하
였던 대목에 관해서 깊은 배려를 해주신 점, 고맙게 생각
합니다. 저의 그와 같은 생각은 실은 오래전부터 內心 뜸
을 들여온 터였고, 吳회장께서는 벌써부터 운을 띄워 온 것
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단시일(數年內)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닐테지요. 또 이런 일은 우리 韓人들이 제일 서툰
일, 하기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challengeable한 것이 아닐런지요. 해야할 일, 해볼
만한 일, 누군가가 시작해야할 일이라고 믿어집니다. 眞理
는 반드시 공명하는 同志가 있다고,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
지요. 문제는 얼마나 이 일에 energy가 동원되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최형! 부디 건승하셔서 한 人間의 晩年의 同志가 되어 주
시기 바라면서 擲筆합니다.

友巖 올림

동문의 소리

정치 전문가 길러내자

요사이 정치권에서 새 인물을
영입한다고 난리이다. 그리고
과거 정치권에 영입됐다 스타일
만 구기고 만 전문가들이 많다
는 사실을 알고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도 새 파인데」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한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非정치인들의 정치입문은
자신을 위해서나 정치권을 위해
서나 모두 백해무익한 일임을
알 수 있다.

소위 영입대상인 변호사, 의
사, 교수, 음악가, 기업인, 벤처
경영인 등은 모두 자신의 영역

에서 초일류가 되기 위해서 노
력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러나 「정치인」으로 변신,
국회에 끌려다니다 보면 자신
본연의 일에 소홀하게 마련이
다. 한우물을 파서 자신의 이름
을 영예롭게 해야 할 사람들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얼치
기 쫓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정치하는 기술이나 정
치역량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국
회를 메우다보니 정치발전과 국
민이익에도 도움이 안된다. 우
리나라 국회가 제기능을 못하는



이유중 하나는 바로 이처럼 스
스로 정치역량을 키워서 국회의
원이 된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
다.

정당들도 꼭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면 일본의 마쓰시다 政
經塾과 유사한 「정치학교」라도
설립해 애초부터 「정치전문가」
를 길러낼 생각부터 해야 할 것
이다. 정치가도 한 사회의 전문
인이기 때문이다. 姜榮哲(80년
社會大卒)매일경제신문 경제부
장 겸 지식부장



료적인 운영 탓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BK21」프로젝트 예산이 서울
대에 집중됐다고 부러워하지만
이는 공대 등을 위주로 한 것이
다. 서울대는 이 나라의 리더십
단이 아니라 참모집단이나 연구
인력 등을 길러내는 학원이 아
닐까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든다.
李承善(85년 社會大卒)월간 헤
드라인 뉴스 편집장

「KS마크」시대의 종언

요즘 상고 출신들이 득세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요인 서
열 1위인 대통령은 목포상고 출
신, 서열 3위인 崔鍾泳대법원장
은 강릉상고, 서열 5위인 李種
南감사원장은 덕수상고 출신이
다.

능력을 중시하고 특정 학연에
개연치 않는 金대통령의 인사스
타일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제
학연을 중시하는 KS마크들의 세
상은 아닌 것 같다. 그런가 하면
경제계에서는 영입부서들이 각
광을 받고 있다. 구조조정이 있
다고 하면 서울대 출신이 많은
연구직부터 잘려나가고 있다.

대학사회에서는 서울대가 독
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시
샘이 이만저만 하지 않는데 사
회에서 서울대가 그렇게 큰 힘
을 발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
생들이 서울대로 모여들고 다른
국립대와 비교할 때도 예산 등
여러 측면에서 우월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국제적 학문·연구
수준은 100위를 기록하고 있다
고 비아냥하는 소리도 들린다.
얼마 전에는 교육부의 서울대
감사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보도
돼 장기간 「독점지위」를 유지해
온 데서 비롯된 무사안일과 관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99년 8월 1일~9월 10일·一般：99년 8월 1일~9월 11일〉

회 장 단

▲명예회장 崔主鎬=30만원
▲상임부회장 鄭宗澤=50만원
▲부회장 閔丙峻=1백만원
▲부회장 李珉和=1백만원

관 악 회

▲이 사 李乃均=30만원
▲이 사 崔鉉烈=30만원

상 임 이 사

▲禹德昶 경대원동창회장=20만 원

이 사

◇工科大學

▲김광교⁶⁵한국DNS 대표
▲김국진⁷⁰태평실업 사장
▲김덕영⁴⁷인터세크 이사
▲김동규⁶⁰서울시립대 교수
▲김종석⁶²선아가스상사 사장
▲김창수⁶³부한산업사 사장
▲박덕상⁶⁰선진엔지니어링
▲박덕철⁶¹화성프랜트 대표
▲박상기⁶²한국전력기술 사장
▲박수명⁴¹강남교회 장로
▲박승재⁶⁵샘표식품공업
▲박용준⁶⁶경남대 교수
▲신승교⁶⁵LG건설 고문
▲신현국⁶⁸대한석탄공사
▲유병철⁴⁷고려대 명예교수
▲이면우⁶⁸서울대 교수
▲이선일⁶⁵동양철관 회장
▲이정호⁶⁵LG석유화학
▲장용균⁶⁷(주)SKC 사장
▲정명식⁶⁵한국산악회 회장
▲조정호⁶⁹(주)코오롱 부사장
▲최운재⁶⁶前한양바스프우레탄
▲편도권⁶⁸유신코퍼레이션
▲황해근⁶⁰동일기술공사 회장

◇農科大學

▲곽영구⁶⁵제일화재 영업부문
▲권오준⁶⁹한국종합기술개발공
▲손원교⁷⁰강원대 교수
▲신한풍⁶³고려대 교수
▲윤대섭⁶⁵성보실업(주)
▲이병일⁶³서울대 교수

◇文理科大學

▲권근술⁶⁸한겨레신문
▲김하진⁶²아주대 교수
▲박부서⁷¹前경기은행 지점장
▲박춘호⁶⁹국제해양법재판소
▲송희성⁶⁰서울대 교수
▲오길복⁶⁸ETRI 기술연구소
▲오세한⁷⁰농협중앙회
▲유병덕⁴⁸전북건물개발(주)

▲이연희⁶⁵前대한전신공업사
▲이주홍⁶⁶경남기업 사장
▲임병석⁶⁸前국제문제연구원
▲최각규⁶⁷前강원도지사
▲한화갑⁶³국회의원

◇美術大學

▲박대순⁶⁵한양대 명예교수

◇法科大學

▲강홍구⁶⁰변호사
▲고학봉⁶⁴포스코개발
▲권동렬⁶³(주)퍼시스 대표
▲권재진⁷⁶사법연수원
▲김경철⁶²중앙일보 상임고문
▲김복환⁶⁰변호사
▲김상기⁶⁷서울고등법원 부장
▲김선욱⁶⁸한국카프로락담
▲김시영⁶⁵변호사
▲김재규⁶³前전주한일고교장
▲김종대⁷²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증환⁶⁶두호실업 회장
▲김학용⁶⁰경남기업 대표
▲남 진⁶⁶보람증권 사장
▲노신영⁶⁴롯데복지재단
▲목요상⁶¹국회의원
▲박용우⁶⁴한국국토개발 대표
▲박인수⁶¹변호사
▲박정서⁶¹변호사
▲송영수⁶⁰한진중공업 대표
▲송진훈⁶⁶대법원 대법관
▲안병우⁷⁰중소기업특위위원장
▲오태환⁶⁷(주)개담 회장
▲원장환⁶²삼원빌딩 사장
▲유길수⁶⁸변호사
▲이강혁⁶⁸덕성여대 총장
▲이강환⁶⁸생명보험협회 회장
▲이국주⁶⁸변호사
▲이대영⁶²성우종합상운 사장
▲이보환⁶⁵변호사
▲이우철⁷¹금융감독위원회
▲이정환⁷⁵한미은행 지점장
▲임광수⁶⁶문화관광부 과장
▲장상재⁶⁹경찰위원회 위원장
▲정경용⁶⁹소비자분쟁조정촉
▲정명택⁶⁴변호사
▲정해운⁶⁷경기대 교수
▲조문부⁶⁹제주대학교 총장
▲진영배⁶¹(주)태영 부회장
▲최영광⁶⁴변호사
▲한영광⁶⁷(주)연합개폐탈감사
▲황이연⁶¹前한국보훈복지공단

◇師範大學

▲박영자⁶⁰시인
▲박찬구⁶⁰양재고교 교장
▲신문섭⁶⁴대유공전 교수
▲신충언⁷⁷문화목재 사장
▲심상학⁶⁷해외투자정보센터
▲이관형⁶⁷서울교대 교수
▲이선준⁶²일성사상연구소장
▲이장호⁶⁸前반포중 교장
▲하순봉⁶⁴국회의원
▲허석구⁶⁷前고려냉장 회장

◇商科大學

▲강신중⁶⁴신한개폐탈 사장
▲권영진⁶⁴前신한은행 감사
▲권태웅⁶⁴한국하나웰 사장
▲김성렬⁶³前한국선물거래
▲김연기⁶⁴국민은행 상무
▲김영석⁶⁰도화텔레콤 회장
▲김영식⁶¹다림실업 대표
▲김윤일⁷⁰(주)두산
▲김창수⁷²국제화재보험 이사
▲맹정주⁷¹국무조정실
▲민경조⁶⁷코오롱종합건설
▲박해룡⁶³BC카드 전무
▲송삼석⁶²(주)모나미 회장
▲신동현⁶⁰前농협중앙회 위원
▲신인식⁶⁴한국개발리스 사장
▲심대평⁶⁶충남도청 도지사
▲심재석⁶⁸태남석유 대표
▲심재선⁶⁴태산신용금고 사장
▲어 준⁶⁴서경통상 대표
▲유병헌⁶¹한불종합금융 사장
▲윤하섭⁶⁹前우행실업 감사
▲이계식⁶²前하성상호신용금고
▲이계욱⁶⁷LG칼텍스 부사장
▲이광표⁶⁵(주)영한상사 대표
▲이동원⁶⁵이화요업 대표
▲전영수⁶⁵前주택은행장
▲정교관⁶¹교보생명 상임고문
▲조중현⁶⁸대진전기 대표
▲차동세⁶⁵LG경영개발원
▲한근환⁶⁴동아건설 금융담당

◇獸醫科大學

▲배원환⁶⁰경안동물병원장
▲서동일⁶⁹이태원가축병원장
▲안석길⁶⁵순흥동물병원장
▲오창영⁶³서울대공원 연구원
▲최준표⁷⁸포스코리아 대표
▲한창훈⁷⁷한도가축약품 사장

◇藥學大學

▲남충우⁶⁶영림상사 대표
▲노환성⁶¹서울중앙병원
▲민주홍⁶⁶대성기업 사장
▲우재성⁷⁵검단약국 약사
▲이상섭⁶⁴태평양연구소
▲정순간⁶²삼진제약 전무

◇醫科大學

▲노동두⁶¹서울백제병원장
▲동영송⁶⁶동의과의원장
▲박봉륜⁶⁹법일 정형외과
▲박상용⁶³서부병원 과장
▲이 영⁶³한강성심병원 의사
▲이문기⁴⁹前울산해성병원
▲이수동⁷⁵소아과의원장
▲이종구⁶⁷서울중앙병원 소장
▲이창환⁴⁹성암의원 원장

◇齒科大學

▲강태욱⁷⁰강태욱치과 원장
▲권일근⁶⁰권치과의원 원장
▲김행원⁶⁶김행원치과 원장

◇家政大學

▲김경덕⁶⁸ ▲김수연⁹⁴ ▲김희선⁶⁵
▲송주향⁶⁹ ▲유경순⁶⁵ ▲윤정희⁹⁴
▲장기숙⁷² ▲홍정란⁸⁸

◇看護大學

▲곽윤희⁷⁸ ▲김순자⁷⁷ ▲김정순⁷⁷
▲박은아⁹³ ▲이창우⁶⁸ ▲조경숙⁷⁹

◇經營大學

▲김병조⁶⁷ ▲김선중⁶⁷ ▲김순영⁸³
▲김연수⁸⁰ ▲김영대⁹⁴ ▲김영진⁶⁹
▲김완중⁹⁶ ▲김육중⁸⁸ ▲김윤수⁸⁵
▲김태암⁶⁶ ▲마동훈⁷⁹ ▲박종완⁷⁸
▲박태원⁶⁶ ▲신대성⁹⁴ ▲신종열⁶⁵
▲안성진⁹² ▲오봉진⁸⁰ ▲유병인⁷⁸
▲유지현⁹⁷ ▲윤주환⁶⁹ ▲이정우⁹⁷
▲장승환⁹⁰ ▲정의용⁷⁷ ▲정준호⁹⁶
▲채창환⁹⁴ ▲최형석⁸⁷

◇工科大學

▲강성춘⁷⁷ ▲강원기⁷⁹ ▲강승순⁷⁵
▲강창민⁹³ ▲강춘식⁶⁹ ▲강호석⁶⁷
▲강홍열⁶² ▲고근희⁶⁹ ▲고봉석⁷⁴
▲고영희⁸¹ ▲공용문⁸⁷ ▲곽국연⁷⁹
▲곽한우⁷⁷ ▲권기동⁶⁷ ▲권수원⁷¹
▲권오훈⁷⁸ ▲김경석⁸² ▲김경욱⁶⁵
▲김규선⁷¹ ▲김근택⁸³ ▲김기원⁷⁹
▲김기준⁶¹ ▲김능수⁶⁵ ▲김대웅⁶⁷
▲김대훈⁶² ▲김덕근⁷⁷ ▲김덕년⁷⁵
▲김두진⁶⁵ ▲김문순⁶⁶ ▲김민세⁶³
▲김병제⁶⁶ ▲김신정⁶⁵ ▲김엽동⁶²
▲김영길⁶⁴ ▲김영웅⁷² ▲김윤재⁷⁷
▲김윤제⁶⁶ ▲김의성⁷⁶ ▲김익훈⁶³
▲김인수⁷⁹ ▲김재일⁸¹ ▲김재화⁷⁰
▲김정균⁶⁷ ▲김정기⁷² ▲김정덕⁷⁶
▲김종국⁶⁹ ▲김주현⁶⁴ ▲김지환⁶²
▲김창석⁶⁹ ▲김철희⁹⁴ ▲김춘고⁶⁸
▲김태문⁷⁴ ▲김한길⁶⁵ ▲김현진⁶⁵
▲김홍수⁶⁷ ▲김홍진⁸³ ▲김희창⁶²
▲김희철⁹¹ ▲나경식⁶⁵ ▲나승수⁸⁰
▲남정우⁶⁵ ▲노무수⁶⁷ ▲노연상⁷⁴
▲맹동호⁶⁵ ▲문정호⁹¹ ▲박근통⁶⁸
▲박남수⁹⁰ ▲박노철⁷⁸ ▲박덕규⁶⁵
▲박병무⁶¹ ▲박병완⁸² ▲박상호⁸⁰
▲박성규⁷⁵ ▲박세권⁷⁸ ▲박승훈⁶¹
▲박시동⁶⁶ ▲박영호⁷⁴ ▲박용철⁷⁸
▲박의수⁸⁰ ▲박정훈⁹⁵ ▲박종관⁸³
▲박주식⁷³ ▲박지형⁷⁹ ▲박진우⁷⁴
▲박창룡⁷⁰ ▲박철현⁷³ ▲백남식⁷²
▲백승한⁷⁵ ▲백영기⁷⁶ ▲변우진⁶⁹
▲성태홍⁷² ▲손계욱⁷⁴ ▲손석원⁷⁹
▲손석훈⁹⁷ ▲손태원⁷⁶ ▲송광호⁸⁸
▲송무석⁸⁴ ▲송종환⁸² ▲송주훈⁸⁴
▲신동호⁷⁷ ▲신현식⁷³ ▲심교언⁹³
▲심정섭⁷³ ▲안명주⁶⁶ ▲안수영⁷⁵
▲안우희⁶⁶ ▲안호순⁴⁸ ▲안호열⁶⁷
▲양일동⁹³ ▲염갑형⁷² ▲오규환⁹⁴
▲오성근⁸⁰ ▲오익환⁶¹ ▲오정일⁶⁸
▲유건중⁷⁰ ▲유경희⁶⁹ ▲유상윤⁹⁰
▲유용선⁶¹ ▲유태성⁶⁴ ▲육득수⁶⁰
▲윤대식⁸⁸ ▲윤병남⁶³ ▲이 철⁷²
▲이 훈⁶⁶ ▲이강명⁷⁰ ▲이광무⁶⁸

일 반

◇人文大學

▲강인자⁸⁶ ▲구창원⁸² ▲김동식⁷⁶
▲김봉현⁷⁹ ▲김주일⁹³ ▲김찬식⁹⁴
▲김창섭⁷⁹ ▲박순발⁸⁴ ▲박천수⁸⁶
▲오성기⁸² ▲오정택⁸⁶ ▲우석균⁸⁸
▲위정일⁸⁹ ▲윤해섭⁸⁴ ▲이 건⁹⁶
▲이승희⁹⁴ ▲임도현⁷⁸ ▲조오룡⁸⁵
▲주종득⁸⁶ ▲최은미⁹¹

◇社會科學大學

▲공종열⁷⁹ ▲권남열⁹⁷ ▲김 인⁹⁴
▲김규연⁸³ ▲김대희⁸⁵ ▲김덕인⁸⁹
▲김성열⁹⁰ ▲김재현⁸⁹ ▲김진홍⁹³
▲김태호⁹⁰ ▲김현철⁹⁰ ▲김환주⁶⁶
▲노형식⁹⁶ ▲류춘호⁸³ ▲박병룡⁶⁴
▲서의곤⁸⁵ ▲서이종⁸⁴ ▲성재호⁹⁶
▲오병삼⁸⁵ ▲유승희⁸⁹ ▲유영석⁹⁶
▲유영욱⁹⁵ ▲윤찬영⁸⁵ ▲은기수⁸⁵
▲이 훈⁹¹ ▲이상언⁹³ ▲이호익⁷⁷
▲이호진⁸⁵ ▲전정하⁹⁶ ▲조석현⁶⁷
▲조성오⁸⁸ ▲조소리⁹³ ▲조태형⁹⁵
▲주진혁⁸¹ ▲진형준⁸⁵ ▲채희율⁸³
▲천윤배⁸¹ ▲최경수⁸² ▲하승보⁸⁶
▲황기호⁸² ▲황성준⁸⁷

◇自然科學大學

▲김상보⁸⁶ ▲김승우⁸⁹ ▲김영일⁸³
▲김후식⁸⁷ ▲박성준⁸⁹ ▲박진결⁸⁶
▲이순민⁸⁹ ▲이완호⁷⁹ ▲이호성⁸¹
▲장윤희⁹⁰ ▲정용환⁷⁹ ▲한인택⁸⁹
▲황병천⁷⁶ ▲황승구⁹⁰

▲이교상70 ▲이남구73 ▲이병기74
▲이병길65 ▲이상기51 ▲이상복77
▲이상영77 ▲이상준68 ▲이상현88
▲이상훈75 ▲이성배82 ▲이영제82
▲이우연55 ▲이운택70 ▲이의은84
▲이인섭86 ▲이장호72 ▲이재원82
▲이정진91 ▲이중웅67 ▲이진태75
▲이창립77 ▲이창범81 ▲이청룡65
▲이호창76 ▲이후상67 ▲이희문56
▲이희일56 ▲이희철78 ▲임 용91
▲임경호86 ▲임복규67 ▲임준서91
▲장인길77 ▲장학현86 ▲정광석75
▲정근영90 ▲정민철90 ▲정성립72
▲정연재72 ▲정재익63 ▲정진섭79
▲정진섭58 ▲정충시76 ▲정화진89
▲조명제76 ▲조순행72 ▲조연제65
▲조인식99 ▲조정구87 ▲조주현78
▲조진현92 ▲조현우87 ▲진병찬52
▲진성문62 ▲진조철80 ▲차균오83
▲차장욱65 ▲최 훈67 ▲최경준69
▲최기철79 ▲최병선71 ▲최수강77
▲최수준73 ▲최용준83 ▲최재열73
▲최종근83 ▲최태현63 ▲최효병65
▲추광호90 ▲하성한61 ▲한기인71
▲한만열80 ▲한민수79 ▲한상준67
▲한승국83 ▲한영용53 ▲한창석72
▲함상우84 ▲허 번57 ▲허기수94
▲홍금용76 ▲홍대형69 ▲홍사우60
▲홍원표83 ▲홍창완81 ▲황성호74

◇農科大學

▲김동근98 ▲강경원56 ▲강석민69
▲고경일65 ▲고규란88 ▲김 랑68
▲김계훈81 ▲김광호92 ▲김기수74
▲김기채67 ▲김대진96 ▲김덕환78
▲김득래55 ▲김성태71 ▲김완기69
▲김일희56 ▲김정호56 ▲김진곤61
▲김창곤92 ▲김충정64 ▲김태규65
▲김혜영62 ▲남상운84 ▲류기중77
▲문희숙76 ▲박 호63 ▲박경호72
▲박광훈57 ▲박나희91 ▲박상현74
▲박정근67 ▲백정자64 ▲변양석63
▲서정운61 ▲성환동92 ▲송승환98
▲신대섭80 ▲신명철67 ▲신상혁67
▲신영훈82 ▲신정재63 ▲안형진78
▲안홍선57 ▲오기봉82 ▲오훈일71
▲윤선병56 ▲윤여찬87 ▲윤인화59
▲이기창55 ▲이돈곤64 ▲이만복60
▲이석봉60 ▲이영열60 ▲이윤호72
▲이철근76 ▲이태일79 ▲이한강73
▲이효승64 ▲전유현75 ▲전윤수75
▲전현기71 ▲전형균83 ▲정기암69
▲정선용63 ▲정순오78 ▲조병주85
▲조성종82 ▲조준기68 ▲조한보62

▲지규만65 ▲최정열78 ▲최현준60
▲한인규66 ▲홍성구72

◇文理科大學

▲강길운54 ▲고광욱75 ▲고광직70
▲권병수70 ▲기전호70 ▲김기근73
▲김기영58 ▲김민욱63 ▲김상욱61
▲김상준67 ▲김영도56 ▲김영문69
▲김영일68 ▲김우철71 ▲김의중70
▲김일철57 ▲김정식66 ▲김정애70
▲김종래75 ▲김종진62 ▲김종환65
▲김춘자68 ▲김치곤57 ▲김태승64
▲남성우63 ▲박우석70 ▲박일현52
▲박재길75 ▲박재순74 ▲박종렬58
▲배인준74 ▲서병국57 ▲석종성58
▲송길상54 ▲송상용62 ▲송정애73
▲송태호72 ▲심 혁71 ▲심갑섭68
▲심영희70 ▲양세숙75 ▲양승영63
▲양영수72 ▲엄철민73 ▲오관영47
▲오동휘63 ▲우병규55 ▲원환상56
▲유병길72 ▲이 결74 ▲이능우48
▲이대승71 ▲이영록70 ▲이용남64
▲이형수67 ▲임동규59 ▲장영섭75
▲전동성72 ▲정낙찬73 ▲정만조69
▲정인보49 ▲정일성63 ▲주승택67
▲최시중63 ▲하태권74 ▲홍문표63
▲황봉구70 ▲황희태64

◇美術大學

▲권경자69 ▲김준경82 ▲김성연72
▲김연미87 ▲손원집69 ▲송복희78
▲유병수63 ▲윤미혜80 ▲이용국65
▲이윤숙88 ▲전효순79 ▲조봉구82
▲최병재93 ▲최장일64 ▲최정희63
▲한옥희63 ▲홍나희67 ▲홍수원90

◇法科大學

▲강동근85 ▲강성명90 ▲강정완82
▲강종원60 ▲강홍구57 ▲구상진72
▲권순탁91 ▲권택신89 ▲김경희65
▲김남식61 ▲김대영78 ▲김도인88
▲김병룡89 ▲김상수64 ▲김세충76
▲김영욱76 ▲김용석85 ▲김용환83
▲김원주57 ▲김윤기79 ▲김인승64
▲김정환57 ▲김종인75 ▲김종훈60
▲김준규79 ▲김형태55 ▲김형표60
▲노부호75 ▲명로승69 ▲문형배87
▲박광우81 ▲박종구85 ▲박태훈70
▲박현상80 ▲배동천90 ▲배용재78
▲백세웅68 ▲서상현55 ▲서재식41
▲서정석69 ▲서태영74 ▲손봉균75
▲송요선70 ▲신동수63 ▲신용락83
▲안성희70 ▲안원식84 ▲양동신72
▲오상태60 ▲오석규62 ▲오영권73

▲원용복75 ▲유병규87 ▲유대길57
▲은창용80 ▲이경환79 ▲이기석80
▲이대원45 ▲이복영66 ▲이상렬61
▲이석우90 ▲이성범74 ▲이신섭66
▲이영기75 ▲이응진66 ▲이장석79
▲이재명63 ▲이준규76 ▲이진홍80
▲이형욱64 ▲이홍원69 ▲임 경82
▲임상규74 ▲임순명73 ▲임영호81
▲장윤기73 ▲장준혁91 ▲전 광67
▲전명호91 ▲장광진63 ▲정연욱72
▲정용재64 ▲정우영63 ▲정주석87
▲정진욱92 ▲정형화66 ▲조근호81
▲조성서67 ▲조영길88 ▲조용근58
▲조인호81 ▲조태연80 ▲조한창87
▲조해근82 ▲조해현81 ▲조현일86
▲진병건75 ▲차형근82 ▲천기필59
▲최광수57 ▲최병덕76 ▲최병철57
▲최승희67 ▲최재호63 ▲하창우78
▲한동기71 ▲함철상48 ▲형대우66
▲황성규65 ▲황희철81

◇師範大學

▲강신우82 ▲고남호73 ▲곽원우92
▲구관서77 ▲권봉순59 ▲권오현75
▲권정화86 ▲김귀식58 ▲김규식76
▲김동배62 ▲김명순65 ▲김민정87
▲김상현70 ▲김성호74 ▲김영관64
▲김일수71 ▲김정욱83 ▲김정환44
▲김정희62 ▲김종욱39 ▲김종찬95
▲김중언68 ▲김진실43 ▲김필순52
▲김향원72 ▲김형기74 ▲김혜원59
▲박노화54 ▲박동섭63 ▲박장평65
▲박정운62 ▲서수현55 ▲서창휘56
▲성낙관61 ▲손세주81 ▲손영재98
▲송복천85 ▲송상순60 ▲송정현64
▲신성택62 ▲엄기택65 ▲유기갑74
▲유자효75 ▲윤근성76 ▲윤기영59
▲윤민중71 ▲이기섭76 ▲이동균69
▲이민섭76 ▲이순원58 ▲이영선75
▲이영희79 ▲이점숙44 ▲이종철80
▲이중섭66 ▲이진원72 ▲이춘근63
▲이흥구85 ▲임재홍71 ▲장영호81
▲장윤정88 ▲전명수51 ▲전신재65
▲전팔근62 ▲정수웅67 ▲조강민60
▲진덕순41 ▲차양로64 ▲최병록57
▲최진석62 ▲최혁상51 ▲한몽숙38
▲한상순50 ▲황재호65

◇商科大學

▲강종호65 ▲곽운광64 ▲김경길67
▲김기홍52 ▲김봉년64 ▲김상경67
▲김상희70 ▲김송자63 ▲김영복61
▲김영식70 ▲김유래66 ▲김재호56
▲김정훈54 ▲김종욱70 ▲김종창71
▲김철환57 ▲김택희74 ▲김한오57
▲나중현58 ▲노병태68 ▲노정욱52
▲문택근72 ▲민경희70 ▲박세훈73
▲박지건64 ▲배철환62 ▲북한재66
▲서규상57 ▲성덕경72 ▲심남진53
▲안승철60 ▲안영목61 ▲양동혁69
▲유재환71 ▲윤신한73 ▲이승웅64
▲이용석66 ▲이웅근55 ▲이재형72
▲이충신68 ▲장병완75 ▲장인주73
▲정순구68 ▲주찬선72 ▲최봉석74
▲최순원63

◇獸醫科大學

▲공창욱64 ▲김 찬55 ▲김종건69
▲노병의65 ▲박종욱94 ▲서승창58
▲서재원71 ▲이완준66 ▲이정웅58
▲이중석57 ▲이형우55 ▲임홍균61

◇藥學大學

▲강창울77 ▲고병훈49 ▲김종욱70
▲김충호76 ▲박상욱76 ▲손경오70

▲신박일64 ▲신화용50 ▲유성렬55
▲이길웅69 ▲이선구94 ▲이숙진92
▲이인순74 ▲이정규72 ▲이형우60
▲전창수78 ▲정상철56 ▲정종철77
▲주상섭69 ▲최규팔74 ▲최병근56
▲최상대79 ▲최성욱82 ▲최희선70
▲한진호63 ▲홍철일61 ▲황광진89

◇音樂大學

▲권한준69 ▲김난아95 ▲김성용82
▲김인숙71 ▲김태훈74 ▲목동균67
▲문용숙79 ▲백태숙75 ▲윤민호80
▲이순신71 ▲장미혜66 ▲정은자87
▲조문자66 ▲조송희79 ▲조원경88
▲주용점71 ▲홍성숙77 ▲황철익57

◇醫科大學

▲고병훈55 ▲공인호41 ▲김용재80
▲김용홍79 ▲김재윤85 ▲김정순60
▲김철용78 ▲김충수75 ▲박국양81
▲박성호79 ▲박성희59 ▲방영현41
▲신현철52 ▲안태원87 ▲오세기67
▲오수정72 ▲유지문60 ▲윤성수84
▲이 열81 ▲이병윤61 ▲이왕재82
▲이용찬89 ▲이인식82 ▲이재원82
▲이현순72 ▲임 영81 ▲임수덕55
▲정규철55 ▲정성은80 ▲정운혁49
▲정응남58 ▲최진상80 ▲탁용준81

◇齒科大學

▲고백진67 ▲고홍섭88 ▲김기국70
▲김미자85 ▲김승남96 ▲김신호74
▲김영호62 ▲김인수61 ▲김인수96
▲김재찬77 ▲김정화88 ▲김종배62
▲김지호88 ▲김재중74 ▲민정미85
▲박영진83 ▲박옥련57 ▲박용연61
▲박용환73 ▲박종수66 ▲박주태70
▲방효숙61 ▲백승진83 ▲변광주42
▲설동진56 ▲안 박66 ▲우건희73
▲유양석49 ▲유하식89 ▲이명호78
▲이상현97 ▲이승건81 ▲이완수57
▲이준기50 ▲이철민85 ▲임승찬75
▲임희숙80 ▲장병천74 ▲조 호66
▲조민선88 ▲조한준57 ▲조현제83
▲진윤수86 ▲최성훈81 ▲최재기83
▲홍삼표78 ▲황병남74

◇大學院

▲경기호93 ▲곽종구88 ▲김덕환77
▲김우식68 ▲김윤성84 ▲김재경67
▲나병현82 ▲박복만71 ▲박상완92
▲박익환78 ▲변정환85 ▲오성삼77
▲오인환69 ▲윤기철86 ▲윤제범64
▲임선하84 ▲전해정87 ▲조남국61
▲조남면98 ▲지병천84 ▲최 일72
▲최인수85

◇經營大學院

▲손영수72 ▲지치상92

◇教育大學院

▲장석민72 ▲정월룡73

◇保健大學院

▲김종서61 ▲송달욱74 ▲전석락69
▲최상순73

◇行政大學院

▲김길조64 ▲김명진69 ▲김봉규61
▲서삼영75 ▲임세환71 ▲정강정87
▲정수부77 ▲현경병87

◇環境大學院

▲고성하77 ▲김진훈87 ▲김홍래74
▲민병욱61 ▲박미경88 ▲윤용희85

▲이장수74

◇최고경영자과정

▲고용석99 ▲기세만46 ▲김기용28
▲김기원43 ▲김길현24 ▲김병곤41
▲김성복23 ▲김성중27 ▲김성현46
▲김세래46 ▲김용길44 ▲김정수45
▲김정재28 ▲김주성30 ▲김진환6
▲남석우55 ▲노정호7 ▲문해란45
▲민영복42 ▲박성남37 ▲박영수33
▲박인준38 ▲박장만46 ▲박재승40
▲박종일44 ▲박진수46 ▲박찬엽40
▲박현진42 ▲방대영13 ▲배삼철42
▲배창환39 ▲서근석16 ▲서병륜45
▲서영철45 ▲송장식34 ▲송춘달46
▲안용태42 ▲안용팔46 ▲여상빈16
▲오순택30 ▲우영열16 ▲원대연44
▲유재만17 ▲유준근4 ▲유한익44
▲이경호44 ▲이내훈25 ▲이대봉36
▲이득춘35 ▲이병구43 ▲이영희30
▲이춘호46 ▲이태호20 ▲이흥근41
▲이화일13 ▲이희정39 ▲장영수46
▲정달영8 ▲정병렬11 ▲정보연43
▲정승열20 ▲정영수43 ▲정우현46
▲정태일40 ▲조규식43 ▲조재돈46
▲최경희38 ▲최영수46 ▲최종근44
▲최호경28 ▲허 남45 ▲황규현44
▲황승민26

◇최고산업전략과정

▲강경모1 ▲강희영13 ▲고규근20
▲금영웅10 ▲김건태16 ▲김성철14
▲김신탍3 ▲김원주3 ▲김재기16
▲김진구18 ▲김태웅13 ▲김형우8
▲박건차16 ▲박평서11 ▲배창환14
▲백인철20 ▲이동훈20 ▲이명호20
▲이병국16 ▲이상운16 ▲이상철13
▲이원재16 ▲이희연20 ▲임봉순16
▲임재호18 ▲장문삼3 ▲전임현5
▲정창현20 ▲조성식20 ▲조인형13
▲조현형5 ▲최경희13 ▲최동수12
▲한도식15 ▲황선우7

◇국가정책과정

▲권영진42 ▲김남경41 ▲김순배66
▲김영수39 ▲김정열5 ▲김창식65
▲김철호46 ▲김형준47 ▲문동명44
▲박기억15 ▲송재인36 ▲심원구22
▲안승우38 ▲양진석42 ▲오성균18
▲오필기2 ▲이교용40 ▲이무영33
▲이범창29 ▲이복승46 ▲이성우47
▲이정재46 ▲이진삼21 ▲장기철33
▲정용남24 ▲정희진47 ▲조정민30

◇고급금융과정

▲고경일11 ▲고광석10 ▲김준식9
▲박종한8 ▲송춘석6 ▲우정기3
▲유평규7 ▲이규범9 ▲이명준5
▲이상락4 ▲이성희6 ▲정문호3
▲정태식13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공창두3 ▲양희용1 ▲이우진4
▲임광수1 ▲장연석5 ▲전영호3
▲정인택3 ▲정태근5 ▲주재현4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곽순영2

◇가정간호수습과정

▲남궁임4 ▲유영숙5 ▲조미자2

“동창회 신용카드,
지금 신청하세요”

〈발급기간 : 99년 7월 1일 ~ 7월 31일〉

개 인

◇社會科學大學

▲구홍교99

◇自然科學大學

▲강선길92

◇師範大學

▲김원배89

◇藥學大學

▲강창중82 ▲금영삼98 ▲김동화99